



## 이은영

이달의 표지 작가



이은영 작가는 영남대학교에서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프랑스 니스의 빌라 아르송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이수한 후 스위스 제네바의 고등미술디자인학교에서 CERCCO 석사 연구 과정을 마치고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리시놀-슈발리에 갈랑드 기금(2013, 제네바 현대미술재단), OCI Young Creatives(2015, OCI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2018,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선정됐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하는 한편 팔레 드 라테네(2015, 제네바), OCI미술관(2016, 서울), 인사미술공간(2018, 서울), 아마도예술공간(2019,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제네바 현대미술재단과 OCI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작업의 시작점은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떠올린, '실재했으나 사라진 것'에 대한 심상들이다. 시적 은유와 공감각적 시각화의 방법으로 이러한 대상들을 다층적으로 탐구하며, 조형화를 거쳐 심상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오래된 묘지' '주인을 잃은 공간과 사물' '일상에서 마주치는 희미한 기억의 흔적' '죽은 이에 대한 애도' 같은, 즉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된 대상들이 있다. 나는 이 또렷이 형상화되지 못한 대상들에 얽혀 있는 감각과 기억의 파편을 끌어올리고 드러낸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와 의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은유 혹은 환유와 같은 문학적 수사법은 주요한 방법으로 작동한다. 이는 '실재했으나 사라진 것'을 향한 인식론적 양가성을 밝히는 일이 하나의 정답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양한 심상의 중첩과 연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어떤 단일한 의미망 안에만 놓일 수는 없다는 태도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작업은 의미와 형태가 자유롭게 변화하는 비정형 덩어리에 가깝다. 다양한 심상이 시각화되고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와 경계, 이로 인한 낯선 감각이 뒤엉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비정형의 덩어리들이, 홀로 때로는 동시에 함께,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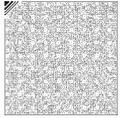
### 표지 작품

〈숨겨진 이름들의 정원〉

도자, 먹물, 모타, 벽면에 목탄 드로잉, 조명

가변 크기 | 2018





**〈밤을 달여 놓아두었다〉**  
혼합 재료 | 가변 크기 | 2019



**〈흐릿한 이름으로부터〉**  
혼합 재료 | 57×50×43cm | 2020



**〈숨겨진 이름들의 정원〉**  
도자, 먹물, 모터, 벽면에 묵탄 드로잉, 조명 | 가변 크기 | 2018

# CONTENTS

2021 02 VOL. 168

##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  
각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1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이은영

04 신년사

## 테마 토크

웹툰·웹소설 전성시대

08 칼럼

2021년 웹툰·웹소설은 어떻게 콘텐츠 산업을 뒤흔들고 있나

10 리포트

웹툰·웹소설 성장 연대기

14 인포그래픽

그래픽으로 보는 창작 환경

16 작품 추천

평론가·칼럼니스트가 추천하는 '이 작품'

##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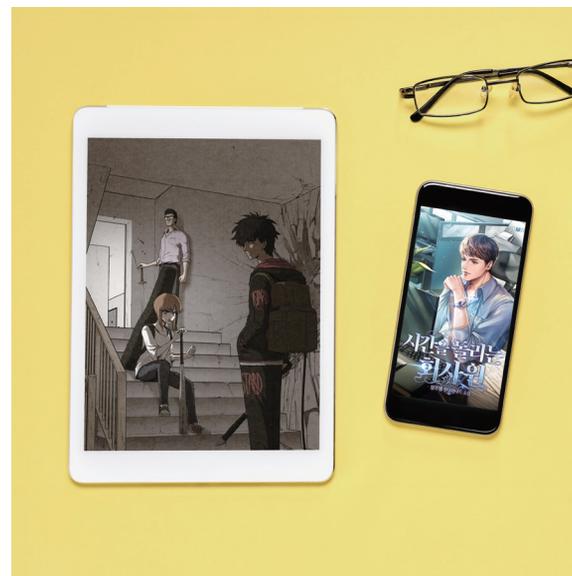
만화가 이종범

22 작가의 방

유수연 연출가·김미월 소설가

24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신한카드·오비맥주·맥코리아 문화예술계 지원



26 서울 할나

28 진실 혹은 대답

2020 아르고 현장 대토론회

### 이슈 & 토픽

34 화제 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36 화제 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공간, 공감

38 공간

공동체 공간 플랫폼 공간이음

40 공감 1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와 <올모스트 메인>

42 공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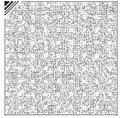
전시 <빌 비올라, 조우>와 <장 미셸 바스키아: 거리, 영웅, 예술>

44 공감 3

책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과 <원스어폰어타임인 실리콘밸리>



###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동업자끼리 공장이라고 말하는 작업실을 가졌다

48 정지우의 썰(說)

2021년 봄을 맞이하는 마음

50 서울 건축 읽기

내게로 오는 공원 ⑥ 다시 통의동 마을마당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 WEBZINE+

56 웹진 [비유]

힘이 되는 이야기

58 웹진 [연극in]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연극계 자치규약  
<세이프 온 스테이지 S.O.S>

60 웹진 [춤:in]

안무가 김현진

62 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 2021년으로

코로나 때문에 새삼 절감했습니다. 예술가와 예술인이 살아남아 있지 않다면 예술 창작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무용지물이라는 당연한 사실 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 긴급지원이 연달았습시다만, 대부분 무슨 활동을 하거나 작품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예술가의 생존 자체가 공공의 가치로 인정되기까지는 아직 우리 사회의 제도와 여론의 장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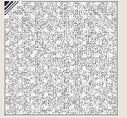
반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창작지원’과 ‘예술기반지원’ 중에서 재단과 위기 시에는 ‘예술기반지원’의 대응력과 수용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예술가의 존재 기반을 다루는 ‘예술기반지원’은 창작 구상과 준비, 진행 과정, 기록, 연구, 비평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예술기반지원’을 한층 실효화해서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구 ‘창작준비지원’)는 정산 없는 시상금으로 올해 지원금을 상향해 300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이 지원 사업을 올해에는 경기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도 시행한다고 하니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업실, 연습실,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분했던 공간 지원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하고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평균 400만 원(최대 1,000만 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이어 ‘우수예술작품기록’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 등 기록, 연구, 매개, 실연, 비평에 대한 지원은 모두 1,00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아울러 ‘예술기반지원’ 공모사업이 예술가의 직관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원 방식을 단순화하고 동시에 장르별 심사위원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심의위원 구성과 각종 제척 사항의 확인 등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술기반지원’부터 서울예술지원시스템(SCAS, 이하 스카스)을 적용합니다. ‘e나라도움’이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과 달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모든 서울형 예술지원사업을 간소하고 정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 스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술창작지원’도 스카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카스가 장차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공유 시스템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 2020년으로부터

돌아보면 모든 일상과 계획이 자빠지고 드리눅고 뒤집어진 혼돈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일상이 된 코로나와 함께 침착하고 세심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연시했던 일상이 누군가의 생존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었는지, 내가 세웠던 계획이 코로나를 부른 생태 파괴와 기후위기의 가속화에 얼마나 편승하고 있었는지, 실은 우리 모두가 재난과 위기의 공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말을 흔히 씁니다만, 코로나는 시시각각 현재이고 변이될 미래이겠으나 무엇보다 1년 넘게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쌓인 생생한 과거로서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는 결코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늘 현재하면서 내가 기억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합니다. 기억되는 과거가 곧 현재이기에 이 과거로부터 무관한 미래가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하여 과거 속으로 돌아가 과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었던 '그 길'과 '그 방식'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이유를, 굳이 이 길과 이 방식으로 살아온 나 자신과 만나야 하지 싶습니다. 지금의 나와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이미지 연습을 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로부터 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나를 기억하고 '그 새로운 기억'을 따라 현재로 돌아나오는 경험이 먼저일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 'Build Back better'의 공식 번역은 '더 나은 재건'입니다만, 직역해 작문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하자'여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서 새 역사가 시작된 인류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짓일지 모릅니다. 과거와 똑같이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성공이나 피해로 편집돼 고정된 과거로 돌아가서, 성공도 아니고 피해도 아닌 혼돈의 순간과 선택의 순간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을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통합한 리듬, 흐름과 스타카토의 두 에너지를 결합한 창조적 에너지'로 설명한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흐름 → 스타카토 → 혼돈 → 영혼의 노래 → 침묵의 춤. 이 중 3번째 리듬이 혼돈이며 그 전형 혹은 원형은 예술가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면, 지원받는 예술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예술가'를, 과거로부터 '그 선택'을 찾아보는 새해이길 바라봅니다.

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웹툰·웹소설 전성시대

☞ 웹툰과 웹소설이 드라마·영화 등으로 제작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감상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됐다.  
구석에 주그리고 앉아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며 만화를 보던 독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웹툰을 보고,  
소설가를 꿈꾸던 직장인은 퇴근 후 웹소설을 써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에 연재한다.  
웹툰·웹소설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짚어보고  
창작자들의 작업 환경과 함께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명작까지 들춰본다. ☞



사진 제공 네이버웹툰, 누룩미디어, 리디북스, 메리크리스마스, 북돋움, 카카오톨



## 감정화된 사회의 사이다 서사

2021년 웹툰·웹소설은 어떻게  
콘텐츠 산업을 뒤흔들고 있나



☞ 웹툰·웹소설은 드라마·뮤지컬·연극·영화 등 이를 기반으로 만든 2차 창작물의 인기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전해지고, 독자의 반응은 끊이지 않는다. 1차 검증된 작품은 거대 자본을 투자받아 새로운 형식의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2021년에도 웹툰·웹소설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현실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다 서사’이기 때문은 아닐까. ☞



드라마로 제작 중인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을 쓴 산경 작가의 웹소설 작업서 《실패하지 않는 웹소설 연재의 기술》(위즈덤하우스)의 홍보 문구는 “퇴근 후 웹소설 써서 10억 벌 수 있다고?!”다. 역대 수익과 퇴근 후라는 키워드는 고용불안, 고용절벽에 시달리는 평범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책에 소개된 유료 누적 조회수가 5,000만이니 편당 100원을 곱하면, 50억 원이다. 플랫폼 수수료가 ios 40%, 구글 플레이 30%고, 에이전시(혹은 출판사)와 3대 7로 나누면 50원 정도가 작가 수입이다. 유료 조회수가 5,000만이면 작가수익은 25억 원이다. 2020년 12월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웹툰 원작 드라마 두 편이 돌풍을 일으켰다. 김칸비·황영찬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스위트홈>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넷플릭스 국내 순위 1위에 올랐다. <스위트홈> 공개 전까지 국내 순위 1위를 차지한 작품은 장이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경이로운 소문>이다. 넷플릭스 순위를 제공하는 플릭스패트롤(flixpatrol.com)에 따르면, <스위트홈>은 2020년 12월 글로벌 월간 순위 8위를 차지했다. <스위트홈>의 성공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독특한 크리처(creature, 게임 속 신이 창조한 생물을 의미함)물 원작을 연재하고, 이를 발굴해 편당 30억 원을 투자해 제작한 회사들이 있다.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콘텐츠 대기업 CJ ENM과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 네이버웹툰이다. 2019년 11월 넷플릭스는 CJ ENM의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 지분을 인



수하며 스튜디오드래곤이 2020년부터 3년간 최소 21편 이상, 연간 7편의 작품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넷플릭스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네이버는 유상증자한 스튜디오드래곤 신주를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자연스럽게 웹툰 IP 발굴(네이버웹툰)-투자(넷플릭스)-제작(스튜디오드래곤)-배급(넷플릭스)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완성됐다. 철저한 기획과 분업 체계가 완성됐으니 웹툰 IP의 가치는 2021년에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

• 작가와 독자의 상호작용으로 확장하는 웹 콘텐츠 •

웹소설과 웹툰도 빠르게 연동되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과 웹소설 원작 웹툰의 연계를 강화했다. 출발은 웹소설이다. 웹소설은 5,000자 분량이 '매일' 연재된다. 유료 연재의 경우 한화에 100원이 결제된다. 무료 연재 작가는 작품을 구독시키기 위해, 유료 연재 작가는 결제로 연재하기 위해 트렌드와 독자의 피드백을 반영한다. 산경 작가는 “웹소설은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독자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라고 웹소설의 특징을 설명한다. 콘텐츠 소비 환경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상호작용성이 확장됐다.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플랫폼은 여러 콘텐츠를 연결해 준다. 웹소설과 웹툰, 그리고 OTT 드라마가 상호 연계돼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하거나 소비하는 전통 매체와 달리 플랫폼은 상호작용성을 통해 콘텐츠를 확장한다. 웹소설이나 웹툰 모두 아마추어를 위한 연재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별점, 댓글 등을 통해 유저도 생산과정에 참여한다. 별점을 누르고, 댓글을 달고, 링크를 퍼가는 피드백을 통해 콘텐츠를 성장시킨다. 플랫폼을 통해 작가-작품-독자가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소비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를

위해 리디북스에서는 해시태그(#)를 통해 작품을 설명한다. 2021년 1월 19일 5시 리디북스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1위는 김수지 작가 원작을 나무·P 작가가 웹툰으로 만든 <상수리나무 아래>다. 첫 화면에 #로맨스 #로맨스판타지 #판타지/SF #시대/역사물 #드라마/일상물 #서양배경 #성장물 #결혼/동거 #첫사랑 #왕족/귀족 #엇갈림/오해 #다정남주 #순정남주 #능력남주 #달달함 #감동/힐링 같은 해시태그가 붙는다. 해시태그로 제공되는 세분화된 틀 안에서 독자는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한다.

• 고구마 현실에서 찾는 사이다 서사 •

끊임없는 상호작용성, 트렌드와 독자의 피드백 반응을 통해 웹툰·웹소설 콘텐츠는 세분화되고 독자와 연결된다. 2021년 웹툰과 웹소설은 서서히 갈등을 고조시키고 극복하는 전통적 스토리텔링보다는 감정이 단번에 해소되는 즉효성에 주목한다. 우정·노력·승리와 같은 전통적 성장 서사보다는 속 시원한 사이다 서사가 각광받는다. 감정화하는 사회, “이성이나 합리가 아니라 감정의 교환이 사회를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감정’ 이외의 커뮤니케이션을 기피하게 되는, 즉 ‘감정’만이 유일한 관계성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에서 대중은 사이다 서사를 소비한다.<sup>1</sup> 역대 연봉은 사이다 서사의 또 다른 자이다. 어디를 돌아봐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회에서 대중은 스마트폰 앱을 켜고 쓰거나, 읽거나, 보는 행위 중 하나에 참여하며 탈출을 꿈꾼다.

글 박인하\_만화평론가

1 오스카 이미지 <감정화하는 사회>, 리시울, 2020, p9



## 세계를 홀린 K-스토리... '아시아 디즈니' 탄생 예고

웹툰·웹소설 성장 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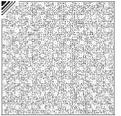
☞ K-웹툰과 웹소설을 위시로 K-스토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웹툰은 마블·DC코믹스로 대표되는 미국과 만가(만화)의 나라 일본을 홀린 것은 물론 유럽·동남아 등 전 세계적으로 MZ세대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 웹툰은 드라마·가요·영화에서 보여준 한류와 달리 태초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더 뜻깊다. ☞

글로벌 웹툰과 웹소설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곳도 다름 아닌 한국의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다. 특히 네이버는 '웹툰스닷컴'을 영어권 서비스 도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웹툰=네이버웹툰'이라는 등식을 심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웹소설 1위 기업 '왓패드'를 인수해 웹툰과 웹소설 1위 플랫폼을 모두 거느리게 됐다. 영화·드라마·게임·캐릭터 사업 등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K-스토리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국에도 디즈니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웹툰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아마추어 작가들이 개인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직접 본인들의 만화 작품을 선보이

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웹툰은 기존 출판 만화 형식에서 탈피해 칸과 책장 개념을 없애고, 대신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읽는 작화 양식을 적용했다. 이들 아마추어 작가들은 기성 출판 만화 작가들처럼 수입을 목적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만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한국 웹툰은 웹소설과 함께 2003년 이후 인터넷 포털로 빠르게 편입되며 플랫폼화가 이뤄진다. 만화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포털은 야후 코리아로 전해진다. 이말년·주호민 등의 작가를 발굴하며 웹툰 서비



1 네이버가 인수한 '왓패드' 누리집 2 웹툰 세로 감상 방식, 다음웹툰(이태원 클라쓰)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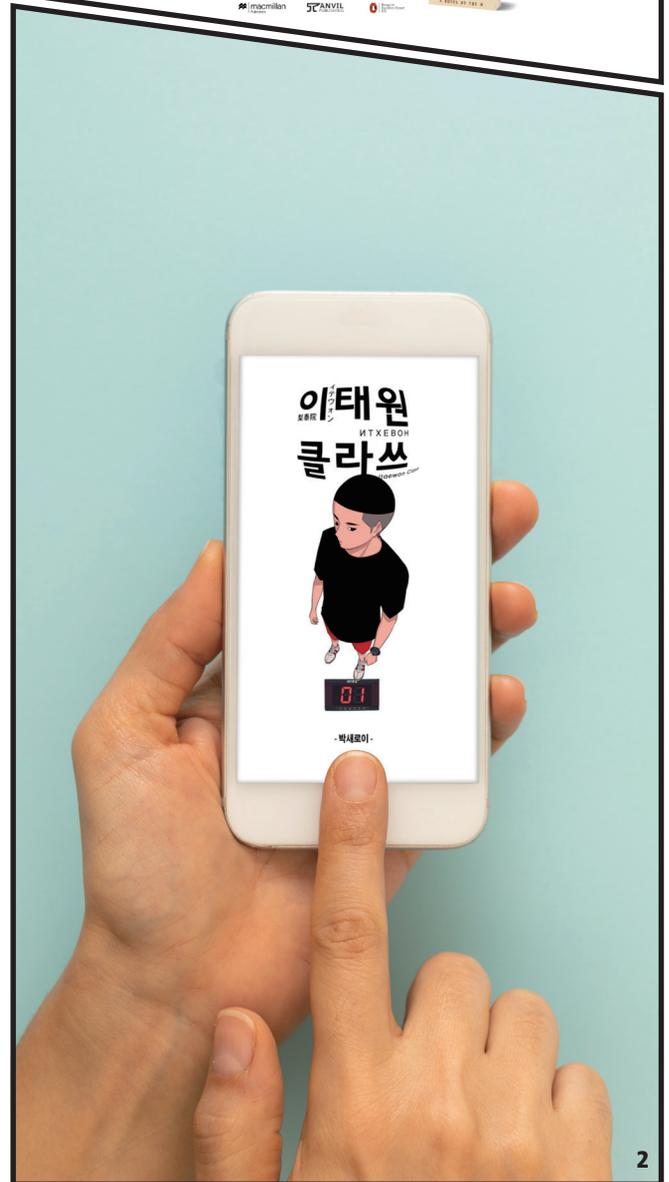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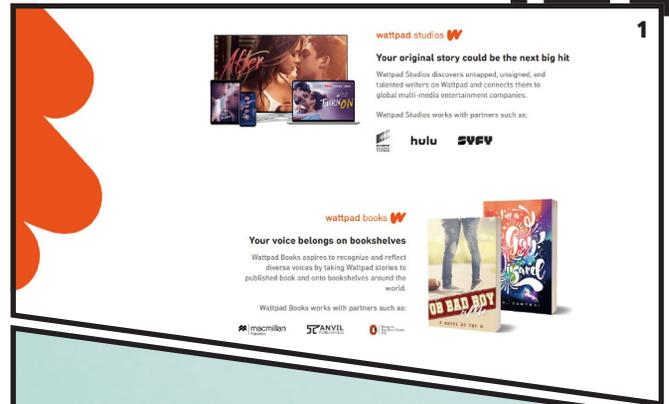
스를 이끌었다. 이후 다음의 '만화속세상'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2005년 네이버가 합류하며 국내 웹툰·웹소설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종적으로 네이버와 다음(현재 카카오)이 포털 시장 강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웹툰 시장에서도 선두 플랫폼의 위치를 점유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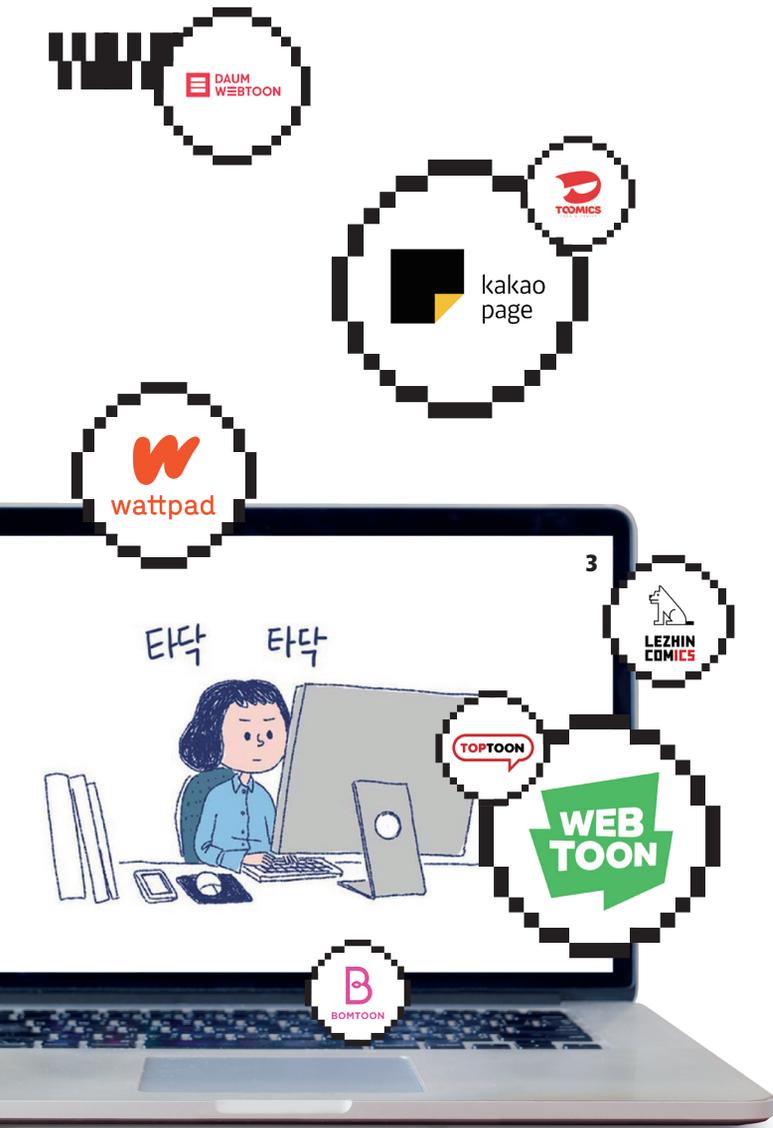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의 성장은 2009년 아이폰3GS의 한국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본격화됐다. 특히 웹툰의 세로 감상 방식은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에 적합했고, 출판 만화 디지털본 대비 가독성이 뛰어나며, 원하는 시점에 어디서든 감상 가능하던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수익모델도 구축된다. 기존 웹툰과 웹소설은 포털의 구색을 맞추고 트래픽을 올릴 용도로 쓰이던 미끼성 콘텐츠였던 관계로 광고만이 유일한 수익원이었으나, 2012년부터 유료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후발 주자인 카카오페이지가 2014년 도입한 '기다리면 무료' 과금 모델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한국 웹툰·웹소설 산업의 대표적인 수익모델로 자리 잡았다. '기다리면 무료'는 작품의 초반 몇 화를 무료로 공개한 이후, 무료 콘텐츠를 다 본 독자에게 일정 시간을 기다리면 다음 회차를 무료로 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다음 회차를 즉각적으로 보길 원하는 독자에게 과금하는, 부분 유료화 모델이다. 다음 화 내용을 바로 보고 싶어 하는 많은 독자가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2013년부터는 레진코믹스를 필두로 중소형 유료 플랫폼이 등장했다. 레진코믹스는 네이버·다음에서 연재하기 어려운 성인물도 도입했다. 성인 콘텐츠는 레진 외에도 탐툰·봄툰·투믹스 등 여러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36개에 달한다. 작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하는 장르의 작품을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K-스토리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한다. 네이버 웹툰은 2013년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2014년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출시하며 글로벌 무대에 섰다. 구글플레이 앱마켓 만화 분야 수익 기준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8,000억 원(2019년 6,000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1조 원 달성 시점 또한 훨씬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을 본진으로 삼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미국 법인 '웹툰엔터테인먼트'에서 글로벌 웹툰 사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래 웹툰 서비스를 총괄하던 국내 네이버웹툰을 비롯해 일본·중국 법인도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지난 1월 19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600억 원에 인수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세계 1위의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플랫폼을 모두 품에 안으며 명실상부 글로벌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왓패드를 통해 한층 더 다

양한 글로벌 스토리텔링 IP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왓패드와의 시너지로 기존에 네이버웹툰이 가진 IP의 다각화 역량이 강화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 카카오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신인 작가의 역량을 키우는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기성 전문 작가들의 대작 콘텐츠를 전면으로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 5,00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본에 진출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픽코마’는 지난해 일본 앱 시장에서 비게임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카카오페이지는 내년까지 미국·중국·동남아 전역으로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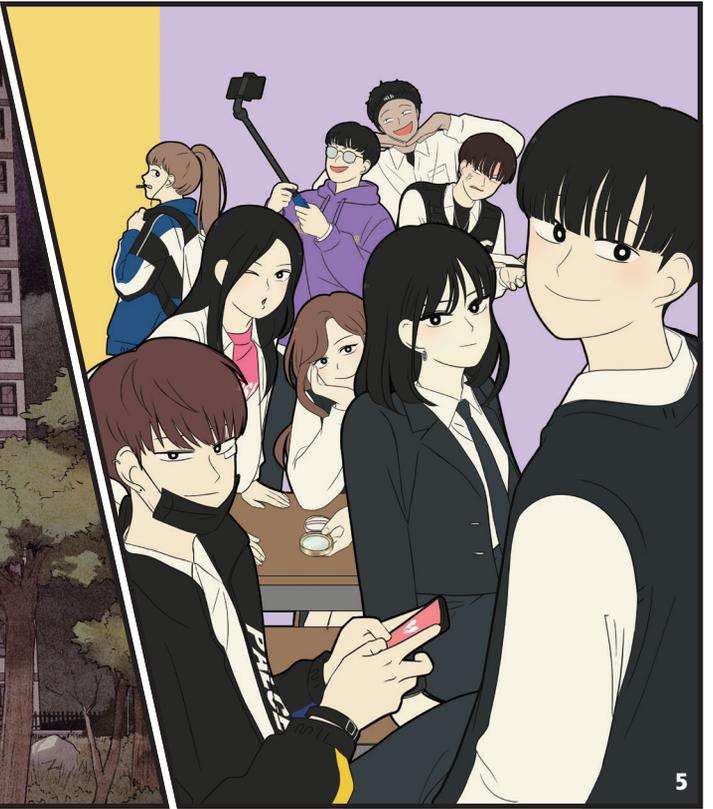
#### • 드라마·영화·게임 등으로 재창작 확산 •

웹툰 작가들은 저작권료뿐 아니라 광고·유료화·2차 판권과 같은 수익모델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직업으로서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게 됐다. 배고픈 만화가의 옛말이 됐다. 역대 연봉을 받는 웹툰 작가는 초등학교 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인기다. 최근 수년간 웹툰은 드라마·영화·게임 등 이종 콘텐츠로 재창작되면서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한 콘텐츠로 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웹툰 작품을 영상화한 2차 저작물이 더욱 인정받은 한 해였다. 참신한 설정과 스토리로 검증받은 웹툰 원작 드라마가 10편 넘게 쏟아졌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최고 시청률 16.5%, tvN 새 주말극 <철인왕후>는 3회 만에 시청률 9.0%를 기록했다. 카카오투의 <연애혁명>과 <며느라기> 등도 원작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 화제다.

K-스토리 원작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가령 동명의 네이버웹툰이 원작인 10부작 드라마 <스위트홈>은 2020년 12월 18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영 나흘 만에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홍콩·카타르 등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 미국 등 한국 영화·드라마가 약세이던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톱 10위에 올랐다.

작가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



는 웹툰·웹소설 IP는 앞으로도 영화·드라마·게임 등으로 활발하게 재창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K-스토리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 국내시장만 1조...규제는 전무 •

웹툰·웹소설 시장은 올해 국내시장만 1조 원 규모로 커지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성혐오·차별·선정성 등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각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에 온전히 맡긴 상황이다.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에서는 젊은 여성 캐릭터가 회식 도중 갑자기

기 누워 돌로 조개를 갠 뒤 회사 정직원이 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성상납'을 묘사하는 듯해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시장 규모와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 없이 내부 규율에만 맡겨져 있어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높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부 가이드라인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글 이진영<뉴시스> 기자 사진 제공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3 카카오페이지 <머느라기> 한 장면 4 네이버웹툰 < 스위트홈 > 5 네이버웹툰 < 연애혁명 >

# 성장의 열매, 창작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그래픽으로 보는 창작 환경

☞ 한국 웹 콘텐츠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작가의 창작 환경도 나아지고 있을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각각 2020년, 2018년 웹툰·웹소설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 일부를 지면에 옮긴다. 콘텐츠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아직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 <한>

자료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202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웹소설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2018)  
정리 이아람\_객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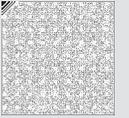
## 웹툰작가 에이전시(매니지먼트) 소속 및 에이전트 고용 여부 n=635 | 단위: %



## 웹툰 창작을 통한 주 소득원 n=635·복수응답(1+2+3순위) | 단위: %



\* RS: Revenue Share(수익배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하는 금액으로 RG(Running Guarantee)라고도 하며 미리보기 등을 포함  
\* MG: Minimum Guarantee(최소수익배분), 매출 관계없이 최소한의 수익배분 보장  
\* 2차 저작권료: 영화·드라마·굿즈 등 콘텐츠의 2차적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수익



### 웹툰 창작 활동 어려움 n=635·복수응답(1+2+3순위) | 단위: %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 시간 및 휴식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악플 스트레스



플랫폼·출판사와의 관계



기타



### 웹툰 불법유통 및 저작권 침해 경험 n=635 | 단위: %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에 게재된 경험



경험 없음 45.8  
경험 있음 54.2

저작권 침해 경험

### 웹소설 작가 등단 경로 n=122 | 단위: %

무료 웹소설 플랫폼 업로드 후 인기를 얻어 등단 48.4

공모전 수상 27.0

업체로부터의 섭외 9.8

기존 인터넷소설 및 팬픽 작가 9.8

기타 4.9



### 웹소설 작가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 n=119 | 단위: %

불법복제 금지 방안 마련 → 37.0

대형 플랫폼의 부당 처우 개선 → 31.1

웹툰과의 콜라보레이션 → 14.3

해외 수출 경로 파악 → 5.9

기타 → 11.8



### 웹소설 작가 주력 장르 n=121·복수응답 | 단위: %

판타지 39.7

현대 판타지 21.5

무협 14.0

로맨스 13.2

역사, 판타지로맨스 3.3

BL, 대체역사, 스포츠 2.5

기타 13.2



☞ 침대에 누워 정주행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세상이다. 어떤 작품이 재미있을까. 일반인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웹툰·웹소설을 봤을 세 명에게 물어왔다. <전>

# 지금, 웹툰·웹소설

평론가·칼럼니스트가 추천하는 '이 작품'



Web fiction

## 멋있는 무기를 가진 남자 / <시간을 돌리는 회사원> 정주행

최근 웹소설에서 '회귀'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전 장르에 걸쳐 시간을 되돌려 환생하는 것은 웹소설의 유행을 넘어 하나의 장르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중 <시간을 돌리는 회사원>은 대개 판타지나 역사극인 여타 '회귀물'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 대성중공업의 계약직 사원 이재혁은 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하려다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이를 저승사자께서 어여빠 여겨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까지 얻는다. 애초에 정교한 설정일량 필요 없다. 그저 시곗바늘을 돌리는 것만으로 그는 시간을 10분 전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됐을 뿐. 능력은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 10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사수와 심하게 대거리를 벌인 재혁은 시간을 되돌려 좀 더 세심한 작전을 세워 사수의 실책을 팀장에게 알린다. 게다가 단 10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다. 이후 재혁은 출세를 위해 인맥을 만들고 다른 이의 흥중을 깨는 등 10분 회귀를 이용해 단칸방 비정규직 인생에서 비로소 도약을 꾀한다.

그럼에도 무대는 온전히 회사다. 그래서일까? 주식은 단지 거들 뿐, 실업을 해도 10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만이기애 어느 자리에서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당당함이야말로 그가 가진 진짜 무기처럼 보인다. 소심한 성격을 딛고 한 발씩 성공에 다가서는 재혁의 허무맹랑한 성장을 기꺼이 응원하게 되는 이유다. 그야말로 판타지의 소품을 빌린 판타지이자, 회사원의 환상을 완벽히 대리하는 판타지다.

글강상준·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문피아





Webtoon

## (같은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선우훈

어릴 때 친아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한 엄마를 따라 서울에서 정읍으로 이사한 열 살 훈이는 할머니·아빠·누나·형·삼촌까지 자신과 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대가족 일원이 된다. 이쯤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 훈이는 선우훈 작가이고, <나의 살던 고향은>은 정읍에서 자란 그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뒤 분주한 20대를 거쳐 30대 만화가가 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미디어에 대도시 중심의 삶이 주로 재현되는 사회에서,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 지방 소도시 청소년의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의 가치는 적지 않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무작정 도보 여행을 떠나거나 재미 삼아 영화를 만드는 등 이력서에는 남지 않지만 추억 그 자체로 소중한 에피소드 역시 미소를 띠게 한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처럼 아기자기하게 구현한 시골집, 도트 그래픽으로 표현한 정읍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광 또한 인상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살던 고향은>의 가장 뛰어난 점은 작품 전반에 유지되는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다. 그것은 작가가 결핍 없는 삶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주위 도움으로 빈 곳을 채우며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자기연민이나 냉소에 빠지지 않도록 깊이 성찰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족·친구·성장에 관한 개인적인 기록인 동시에 보편적 서사로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의 ‘뿌리’에 관해 생각해 왔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만든 작가의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가족이 누구 인지는 성씨 같은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닐 것이다.”

글 최지은\_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누룩미디어



<나의 살던 고향은>

<퍼펙트 게임>



Webtoon

## 시끄러운 아저씨들의 야구 / <퍼펙트 게임> 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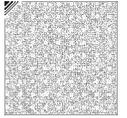
추운 겨울이면 난롯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것에서 유래한 ‘스토브리그(Stove League)’는 야구팬이 아닌 사람들에게겐 드라마로 잘 알려진 단어다. 겨울에는 야구를 볼 수 없으니 야구팬은 스포츠 뉴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새로운 소식을 기다린다. 하지만 프로리그만이 전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뛰고, 구르며 우리를 흥분시키는 사회인 야구를 그린 만화가 있다. ‘하늘시’의 사회인 야구팀 ‘블루 엔젤스’의 이야기로 꾸민 <퍼펙트 게임>은 시끄럽다. 아저씨들이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싶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크롤을 내리게 된다. 돈 받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면서 공 하나에 울고 웃는 아저씨들의 삶은 그들이 사는 하늘시 재래시장을 닮았다. 새로운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감,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저씨’들과 재래시장이 함께 겪는 갈등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존 위협,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야구단 존속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한다. ‘시끄러운 아저씨들의 이야기’라는 말은 블록버스터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퍼펙트 게임>에는 공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 그라운드에서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글 이재민\_웹툰평론가 사진 제공 북돋움

사람과 사람  
문화인

# 자아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피는 일

만화가 이종범



만화가 이종범이 연재하는 <닥터 프로스트>는 2021년 2월 2일 연재 10주년을 맞고, 상반기 결말을 예고했다. 그는 대학교수·한국만화가협회 이사 등 웹툰 연재 외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웹툰스쿨>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어릴 적 자신을 울리고 웃긴 만화에 빠졌고  
이제는 본인이 만화를 그려 독자를 울리고 웃긴다.  
새롭고 참신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도 있는 반면,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작가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상 흐르는 모습을 보며 만화를 그리는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건넨다.

“큰 불을 끌 때, 중요한 게 뭘지 혹시 아세요? ‘불길’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된 불인지… 다음에 옮겨붙을 지점은 어딘지… 그 길을 미리 읽어서 막아가면서 끄는 거죠. 제가 할 일은 그 불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불들은 뭐랄까. 자꾸 어딘가로 옮겨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네이버웹툰에서 10년째 연재 중인 이종범 작가의 만화 <닥터 프로스트>의 경찰 강유리 과장이 한 말이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어디로 어떻게 번질까’ 고민하는 일이 작가가 할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최근 그는 세상의 ‘불길’을 살피며 만화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웹툰 연재 외 활동에도 참여한다.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을 진행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스토리텔링의 이해 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4회 정부혁신제안 결과개발대회에 참여해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끔 글을 쓰거나, 청소년 진로를 위해 강연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인터뷰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는 간단했다.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혹은 웹툰 작가라고 소개하는 그는 만화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 한 소소한 동기가 어떻게 진화하는가

그는 8살부터 만화를 그렸다. 계기는 어린 나이답게 귀엽고 단순하다. 어느 날 어린 이종범은 학교에서 <드래곤볼>의 국내 해적판 <드라곤의 비밀> 한 장면을 따라 그렸다. “잘 그렸네” “나도 그려줘” 또래 친구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신기한 듯 그림을 구경하는 친구들의 반응은 그에게 묘한 쾌감을 안겨줬다. 그는 쾌감에 이끌려 꾸준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를 그리고, 다양한 만화를 찾아봤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는 친구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만화에 빠진 꼬마 아이였다.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진짜 사나이> 등 <소년챔프>와 <아이큐점프>에 실린 여러 만화가 그에게 감명을 줬지만, 의미 그대로 그는 만화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에게 만화는 여전히 막연했다. 중학생 때 우연한 사건으로 일러스트와 만화를 처음 구분했을 정도니까. 그가 다니던 학교 후문 쪽에는 이름 모를 만화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소문을 듣고는 그동안 그린 그림을 들고 만화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곳에서 수업을 깎지 않은 만화가가 문을 열었다. “그림 그동안 쓴 스토리를 좀 볼까?” 다행히도 친절한 만화가는 어린 이종범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을 했다. 하지만 그는 당황했다. 지금껏 만화를 그린다고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이야기는 없었다. 그가 그린 만화는 없었다.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만화가 아저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학교 공부와 만화 작업을 병행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방금 들은 수업을 복습하고, 점심시간 내내 오전 수업 내용을 복기했다고 말한다. 집에서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만화를 그렸다. 중학교 3년 내내 밤마다 만화를 그리며 라디오 <배유정의 영화음악>이 끝나는 새벽 3시 즈음 잠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관심받기 위해, 소소한 동기로 시작한 만화가 어느새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한 에세이에서 ‘소소한 동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주인공의 동기는 스토리를 쓸 때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 주인공이 행동하는 이유가 독자를 납득 시키지 못하면 독자들은 만화에 전혀 감정을 이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주인공의 동기는 처음에는 작고 소소하다. 중요한 것은 ‘작고 소소한 동기가 조금씩 진화하는 것’이

다.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는 채소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농구를 시작한다. 정말이지 불판 위의 에탄올처럼 순식간에 증발할 수도 있는 미약한 동기다. 하지만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강백호의 동기는 눈부시게 진화하고 결국 그는 자아의 신화를 어느 정도 이루어낸다. 개인적으로 동기의 진화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라이벌, 멘토, 그리고 바닥을 치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이 모든 요소보다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취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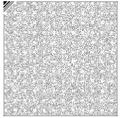
이종범 자신의 삶과 닮았다. 친구들에게 관심받는 쾌감을 좇아 꿈을 키워간 아이는 2021년 마흔 살이 되도록 만화를 그리고 있다. 고등학생 때는 만화 동아리 ‘이미지 링크’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수능 당일 시험이 끝나자마자 만화책 한 권을 엮기 시작했다. 열정을 전부 쏟아낸 걸까. 성인이 되고 7년가량 만화가 된다는 말만 하며 만화는 그리지 않았다. ‘작가를 하려면 인문학이 도움 되겠지’하는 어렴풋한 생각과 시험 성적을 고려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했고, 음악 만화를 그리고 싶

는 이유로 악기를 배웠지만, 정작 만화는 그리지 않았다.

“만화랑 의무적 관계라면, 음악은 연인 느낌이었어요. 음악으로 돈도 벌리니까, 직업으로 삼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공연장에서 신나게 연주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대 아래서 음악 듣고 춤추는 관객이 정말 신나고 즐거울까 조금도 관심 없구나. 나는 신나는데, 누군가가 신나지 않으니깐 환불을 요구하면 반박할 논리가 없더라고요. 만화를 그릴 때는 그리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린 만화를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개그 타이밍인데 웃어줄까. 반응이 없으면 고쳐 그려서 만족을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는 다시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했다. 2009년 《스포츠투데이》에서 원고료를 받으며 연재한 <투자의 여왕>이 데뷔작이다. 2010년 1월 데뷔작을 끝내고, 출간한 단행본을 손으로 직접 만졌으니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유쾌한 감정은 잠시만 머무는 걸까. 그는 데뷔작을 완결한 후 1년간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네이버웹툰에 도전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작





품을 보여줬지만, 거절당했다. ‘자살한 펀드매니저의 뒤를 둘러싼 암투’ ‘세대 풍자 학원 액션물’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소년의 이야기’ 등 총 6개 작품이 서랍으로 들어갔다. 같은 작업실을 사용하는 동료들은 연재를 이어가며 차기작을 준비하는데, 그는 그들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돈을 빌렸다. 당시 나이 29살이기에 그는 불안했다.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 분석, 작법서 탐독, 자기 스토리 만들기 세 가지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2월 2일 <닥터 프로스트> 연재를 시작했다.

###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준다면

작가가 <닥터 프로스트>로 전하는 이야기는 명확하다. ‘자기 이해.’ “만화에 등장하는 심리학·혐오·테러 등은 모두 소재입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 선택한 거죠. 저는 독자가 만화를 다 봤을 때 무언가를 체험하면 좋을지 정리하는데요. 결말과 엔딩 컷을 정하면, 반대로 그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닥터 프로스트> 같은 경우 ‘자기 이해’가 중요하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닥터 프로스트>의 주인공 백남봉(프로스트) 심리학 교수는 아주 어릴 적 기억이 없다.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아직 모르지만, 다른 사람보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부족한 채 살아왔다. <닥터 프로스트> 시즌 1·2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심리학 교수 프로스트가 오직 논리만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감춰진 마음을 파헤치는 이야기이며, 시즌 3은 프로스트가 분명 가지고 있지만 내면 깊숙이 숨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다루고, 시즌 4는 사람들에게 두려움·분노·혐오를 퍼뜨리는 한 남자를 막기 위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 프로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로스트는 시즌 1·2에서 타인 한 명 한명을 마주하고, 시즌 3에서 자신의 숨어 있던 자아와 맞닥

“만화에 등장하는 심리학·혐오·테러 등은 모두 소재입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 선택한 거죠.”



뜨리고, 시즌 4에서 사회로 나아간다. 한 사람의 인생살이가 흐른다. 이야기가 흐르면 흐를수록 프로스트 내면에 숨어 있던 애정·슬픔·분노·기쁨과 같은 감정이 조금씩 드러난다. 무표정하던 프로스트가 처음으로 미소 짓고, 눈물 흘릴 때 독자는 작가가 의도한 대로 ‘무언가’를 체험하게 된다. 이야기는 현재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만화를 그리기 위해 만화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릴 때, ‘이 만화는 뭐길래, 날 울리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나한테 무언가 말을 걸어 있구나. 공통점을 막연하게나마 찾은 것 같아요. ‘말을 건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섯 군데나 다녀서 단짝 친구가 없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만화를 봤는데, 주인공과 친구가 서로를 위해서 싸워주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게는 이런 친구 관계가 없구나. 제게 부족한 점을 만화가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작가는 트위터·뉴스·팟캐스트·강연 등 만화 외적으로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한다.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프로스트 교수가 내담자와 상담하듯 독자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글 장영수\_객원기자 사진 제공 이종범

# 불확실성마저 담은 연극



## 유수연 연출가



유수연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철학·정신과학·연극학·영화학을 전공했으며, 아트클럽농 대표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 선정작 <룩킹포잡>(2017, 노을소극장), 혜화동1번지 기획 초청 공연 '세월호2018' <말테(Malte)>(2018, 혜화동1번지 연극실험실),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 다원예술분야 선정작 <#해시태그 악령>(2019, 문래예술공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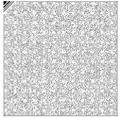
###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은 수많은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다원 분야의 유망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래예술공장 맵(MAP)에 선정된 유수연(40) 연출가는 2020년 11월 27~30일 공연한 <#해시태그 악령>의 작품 의도를 이렇게 요약했다. 다원 장르를 다루는 문래예술공장의 특성에 부합하듯 이 작품은 공연을 비롯해 영상·영화·체험을 더한 결과물이다. 주차장에 대기한 관객은 스마트폰에서 비밀 채널로 초대 링크를 받으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운영자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 관객은 실시간으로 타인과 연결된 채 방 사이를 오가며 선택과 합의를 거쳐 상위 단계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의식이 모여 거대한 권력과 악이 생성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온라인·오프라인, 진짜·가짜, 건물 안팎 등 수많은 경계에서 링크와 해시태그, 댓글을 달면서 가상공간에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순간을 마주한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까지 공연 소재로 삼은 유씨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2018년 혜화역 불법 촬영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10대였다는 뉴스를 듣고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를 모두 겪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쥔 10·20대는 디지털미디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이 작품은 미디어 세계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가짜뉴스·양극화 등 수많은 폐해보다 이것을 둘러싼 현상에 주목했다. 즉 불완전한 의식이 거대한 악으로 확장하는 틈을 허락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으로써 관객이 일상의 재난과 공포를 체험하도록 한 것이다.

“반쯤 열린 창문에 새가 부딪혀 죽은 것을 보고, 총체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선택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의도처럼 그는 관객에게 극의 흐름만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택할 문제를 생각하라며,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구를 찾아가길 당부했다.



## 음성으로 들려준 소설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일지라도 누군가 쓸모 있게 해줄  
답을 찾기 위해 애쓴다면, 그 곡진한 기운이 모여 사람들의 인식, 시대의 얼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2020년 12월 11일 오전 9시 55분부터 2분 30초간 티비에스(TBS) 라디오 FM 95.1MHz의 전파를 타고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소설가 김미월이다. 어느 때 같았으면 교통정보가 들려왔겠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문학인 60명이 라디오에서 시와 소설을 낭독하는 ‘문학에 물들다’ 캠페인에 동참했다. 2020년 10월 5일에 시작한 대장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김 작가는 라디오에 송출할 작품으로 단편소설 〈질문들〉을 선택했다.

이유를 물었는데, 위태로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그 ‘질문들’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며,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아니겠나 되묻는다. “2019년 겨울, 소설집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를 출간했는데, 당시 예정된 독자와의 만남에 차질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독자와의 소통을 기다렸는데, 기대가 어긋나 아쉬웠어요.”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장기화한 전염병 때문에 지친 작가와 독자들을 위해 캠페인을 준비한 것이다. 특히 작가 60명 중 대미를 장식한 그는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소설을 전하는 방식이 때로는 흥미롭고 여운도 크다고 고백했다. “독자가 문학에 물들길 바랐는데, 이젠 저 자신이 먼저 문학에 물들어가는 기분이예요.”

더불어 이 캠페인을 듣는 청취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자 터키의 서정시인 나즘 히크메트(1902~1963)의 시 〈진정한 여행〉 일부를 인용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 김미월 소설가



김미월은 1977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정원에 길을 묻다〉로 등단했다. 출간한 책으로는 소설집 《서울 동굴 가이드》와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장편소설 《여덟 번째 밤》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신동엽문학상과 젊은 작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이 있다.

# 기업 예술후원 받아 코로나 극복 함께해요

## 신한카드·오비맥주·맥코리아 문화예술계 지원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은 외부재원 유치 전담부서로서 그동안 쌓아온 기업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로 피해 본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했다. 공공자금의 예산 편성 한계로 시도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기획했는데, 이러한 성과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첫 사례 보고(2019. 12. 31) 이후, 사람 간 전염되는 특성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약 3개월 뒤인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TO)는 급기야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했음을 선포했다. 국내에서도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비상상황이 이어졌고, 추가 감염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 밀접한 거리, 폐쇄된 공간에서 전염될 확률이 높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예술가가 실내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현장에서 대면 소통하는 활동이 필수인 문화예술계는 대부분의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는 등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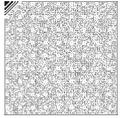
### (주)신한카드와 함께 진행한

#### 온라인 공연을 위한 공연장 대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공연이 취소 혹은 무기한 연기되고, 공연장 대관에 난항을 겪는 공연예술인들은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



신한카드와 협력한 온라인 공연 지원 사업 현장



관이 예술단체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발표를 독려했다. 재단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신한카드와 긴급 협력했다. 424석 규모의 '신한카드 판스퀘어'를 무료로 대관하고, 무대장비 및 진행 인력을 도움 받아 무관중 공연 개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송출까지 지원했다. 참여한 예술단체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온라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 결과 온라인 공연 총 12건 개최, 공연 영상 콘텐츠 26건 제작 등의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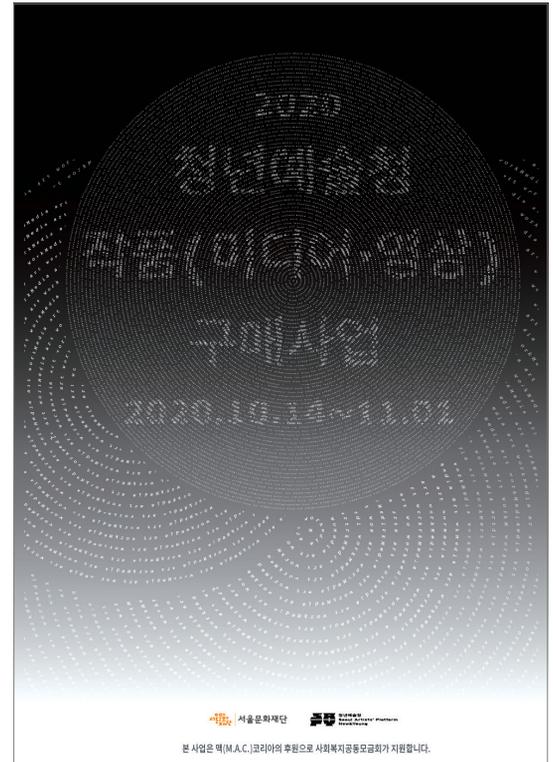
### 오비백주(버드와이저)와 함께한

#### 인디뮤지션 공연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디뮤지션의 주된 활동 무대인 라이브 클럽은 물론 거리두기가 불가한 스탠딩 객석을 위주로 운영하는 홍대 앞 소규모 공연장들은 아예 문조차 열 수 없었다. 공연장을 잃은 젊은 예술인들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버드와이저의 기부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을 통해 모인 한정판 티셔츠 판매 수익금과 기업의 매칭 지원금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의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인디뮤지션들의 고품질리티 라이브 영상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했다. 총 9개 팀의 공연 영상 콘텐츠 33편을 제작했으며, 누적 조회수 9만 6,000건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공연 영상뿐만 아니라 예술가 인터뷰, 티저 영상 등도 추가 제작해 참여한 인디뮤지션들이 홍보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휴 청년예술인 작품 구매 지원

공연예술계뿐만 아니라 예정된 전시가 취소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도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맥코리아가 법정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재원으로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2020 청년 예술청 작품 구매 사업'을 진행했다. 기존의 지원 사업이



사랑의열매 '2020 청년예술청 작품 구매 사업' 포스터

창작·제작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창작 결과물을 구매해 예술가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재난 상황에서도 작품 판매를 통한 수입으로 새로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실험해 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3개의 영상·미디어 작품을 구매했으며, 작품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시기가 오면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글 김영지\_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적지만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기부 브랜드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해 예술 기부로 함께하는 기부자의 인터뷰로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洗劍亭





이월은 아직  
 틀림없는  
 겨울의 그 어드메  
 봄의 기운은  
 한 가닥도  
 셀 도리가 없지만  
 저기 얼음판 위  
 아이들이 맑은  
 웃음을 이리저리  
 굴리다 보면  
 봄은 바늘구멍을  
 타고 조금씩  
 움트기 마련

\*세검정(洗劍亭)은 조선 영조 24년에  
 창의문 밖에 세워진 정자다.  
 인조반정 때 이귀·김유 등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 폐위를 결의하고  
 칼날을 세웠다는 데서 유래했다.  
 장마가 지면 도심 사람들이 모여들어  
 볼어낸 물을 구경하던 명소였다.  
 1976년 서울시기념물 제4호로 지정됐다.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 공정 창작 생태계를 위한 현안과 대안: 위계, 제도, 공정보상

## 2020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급격한 전환의 시기에 예술 생태계의 방향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년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는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계기로 현재의 지원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예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변화의 시기, 예술지원의 방향' '공정한 예술 생태계' '참여와 거버넌스' 3개의 주제로 총 9개의 세션이 진행됐으며, 그간 예술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소위원회가 중심이 돼 예술 현장의 고민과 쟁점을 살폈다. 그중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주관한 '세션 9. 공정 창작 생태계를 위한 현안과 대안: 위계, 제도, 공정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오후 1시 30분~3시 20분

**사회** 김근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시인

**토론** 이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서지민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권민경 시인

유재하 Y&N팩토리 대표

장도국 배우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토론회 동영상** 유튜브 채널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

(youtu.be/XxaYJpJ41Zk)

김근 이번 세션은 문화예술계의 각종 불공정 관행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자 준비한 짧은 발제를 듣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도국 예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의 광주시립극단에서 '비상근 객원 단원 노동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로서 현안과 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시립극단의 수시 공연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의 연습과 공연 과정에서 상임 단원인 연출과 무대감독이 비상근 객원 단원인 조연출과 배우 3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불공정 계약 강요·보험 미가입·안전권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먼저 문예회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분리 조치와 징계를 요청했지만, 문예회관의 회유, 2차 가해 등에 실망하고 규탄 성명서를 SNS에 게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공론화 이후 지역 언론의 관심과 취재로 문제가 힘 있게 전파될 수 있었던 반면,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노출되면서 사실 왜곡과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광주광역시 인권읍부즈맨·광주고용노동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조사 기관들이 예술인의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역시 피해자가 직접 제공했습니다. 이후 지역의 예술·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와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했지만 광주시와 문예회관은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운영조례상의 상임과 비상임 단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작품에 참여했던 일부 배우와 스태프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문예회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서는 부당업무 강요와 인격 모독은 인정했지만, 성희롱 피해는 단순한 성차별적 발언으로 판단했고 배우들의 안전권 침해도 각하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배우와 조연출의 계약과 근무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광주고용노동청의 첫 근로자성 인정 사례입니다. 상임 연출의 직장 내 괴롭힘, 무대감독의 성희롱도 인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예회관은 가해자 2인을 중징계한다고 밝혔지만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문예회관과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4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폐쇄적인 지역 예술계의 배제와 2차 가해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상황에서 활동 포기까지 생각하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일반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비교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입니다. 예술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공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저는 졸업 후 예술 현장에 진입할 때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을 전공하면서 '최고의 연주가 되지 못하면 음악인의 길을 걷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많이 했는데요. 실기 연주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레이닝은 물론 개인의 끼나 예술적 역량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과 동기 90명 중 10명 정도만 전공을 살리는데요. 어린 시절에 전공 분야를 결정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대학 졸업 후 실기인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불안감에 인접 분야로 넘어가거나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술대학이라는 고등교육 안에서 이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2020 아르크 현장 대토론회'  
세션 9 토론 진행 현장





(왼쪽부터)  
 김근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시인,  
 이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장도국 배우

실기를 전공한 후 예술 현장으로 들어오는 인력은 포화 상태입니다. 실기인이 아닌 인접 분야로 넘어간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 난관에 봉착합니다. 실기하는 친구들도 졸업 이후 공공기관에 낼 지원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술위나 지자체 문화재단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예술인들이 이 내용을 다 배우고 졸업하는지 물어보면 아니라는 대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저는 2013년부터 한예종에서 강의하면서 '졸업하자마자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작성 시 정부의 예산 구분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는데 갓 졸업한 예술인들이 이 항목을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왜 학교 안에서 교육하지 않고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소화해야 할 문제를 사회로 떠넘기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술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내보낼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편과 교수님들과 현장 간의 점점 만들기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하** 저는 지역 예비 예술인의 실태와 문제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

았지만 고향은 대전이라 지역 간의 온도차를 크게 느끼는데요. 2019년 대전 예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예비 예술인들은 실용 교과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안에는 지역에서 전공을 지속하고 싶은 예비 예술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 간 인프라 차이와 네트워크 형성 부족을 느끼면서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거나, 이 분야를 하고 싶지 않거나, 출신 지역이 아니라 이질감을 느끼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예술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취직하고 이것을 그만둘지를 고민합니다. 현재 예술대학에서는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한 역량 강화보다 취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시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없다 보니, 졸업 후에 직면하는 진입 장벽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의 청년정책은 취업과 창업 위주이고 다양한 청년예술인을 인지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지원사업은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비 예술인들의 정책과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연극영화과 학생은 학과 통폐합으로 전공과 관련 없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이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불만도와 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대학 전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비 예술가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사업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지민** 제 발제는 예술대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업으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유효한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예술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창작 능력과 직업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술대 학생은 이 두 가지를 충분하게 교육받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예술대 학생의 절반 정



도는 커리큘럼에 불만족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술 위주의 도제식 교육과 학생 의견과 시대 반영에 소극적인 커리큘럼 때문입니다. 예술대학의 실습교육이 현장과 유리돼 현실에 부응하는 창작물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창작 환경과 재원 역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의 높은 등록금 대비 적게 책정되는 실습비, 사비로 하는 전시·공연·행사 등은 언제나 큰 부담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술대 학생 대부분(94.3%)이 문화예술직 종사를 희망하지만 관련 지원 사업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학 측의 직업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인데요. 대학은 취업률에 중점을 두는 와중에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이 두 전제가 충돌하면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예술대 학생은 창작 활동과 교육 관련해서 합리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졸업 이후 요구되는 능력 또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예술 활동의 시작점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도 언급하고 싶는데요. 실습비 지출은 청년 예술인들의 부채와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예술 활동 외 불안정한 노동을 야기합니다. 청년 예술인은 임시직의 비중이 높고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계약 체결 경험도 많습니다. 이는 불충분한 직업교육과도 연관 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은 개인의 인지도와 노하우에 기대 활동하거나 소규모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 예술인들은 기성 예술인들과의 위계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등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계의 한계가 예술인의 진입을 줄여줄게 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진입 시기를 맞은 청년 예술인의 지원제도 마련에 앞서 예술인 양성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권민경** 공정한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

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제로 제시된 위계, 제도, 공정보상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문학의 경우 2020년 예술위에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모전과 문학상 관련 수상 상금의 행사 뒤풀이 사용 강요, 심의 과정에서 수상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뽑혔습니다. 이는 위계 문제와도 관련 있는데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고료 대신 물건이나 쌀 같은 현물로 지급하거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표준계약서가 중요한데요.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장르별로 개발해 배포하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학의 경우 원고 계약서를 청탁서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청탁서 안에 원고료, 지급 일정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표준계약서가 필수로 자리 잡아야 기본적인 공정 창작 생태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문학 분야 실태조사 연구는 여러 불공정 관행을 알리고 대응책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돼야 대응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습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갑질'이 위계 폭력임을 말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술 장르의 창작 활동이 단체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언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폭력임을 밝히는 장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위계 문제에서는 20~30대 청년예술가가 취약한 편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않는지 현장의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장소통위의 청년 위원 비율을 높이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는 중견·원로 예술가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가진 예술가라는 인식도 중요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료라는 인식은 위계 문제를 해결할 열쇠 중 하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실마리 찾기**

**김근** 이제 공정한 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논의해 볼 텐데요. 먼저 장도국 배우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장도국** 현장의 예술인들이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문예회관 내에서도 개인적인 계약 형태로 작업하다 보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요. 지역 단위 혹은 문화재단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관리하고 자문해 주는 인원이 배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 예술 현장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직접 창구를 마련하면,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예술계를 이해시키는 시간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민 님은 현장과 유리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계 상황을 느낀 적이 있나요.

**서지민** 예술대 학생은 교수님과 선배 예술인들에게 잘 보아야 앞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의견을 내기도 힘들고 권력이 기울어진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김근** 그러면 도제식 관계 말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서지민** 도제식 교육을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아요. 기술이나 표현 면에서 좀 더 정제된 것을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니까요. 현장과 연결되는 다양한 기회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근** 장르마다 제도에 진입하는 형태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를 텐데요. 문학계의 진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위계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권민경** 문학의 경우 등단하고 싶으면 책을 사라는 식의 불공정한 사태가 많아요. 돈을 내서라도 등단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등단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요즘 늘긴 했지만, 문학계에 진입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등단이라는 생각이 아직 많다 보니 악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 최근 문학계에는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면서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

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문학으로 진입하리라 전망합니다. 도제식 관계가 강한 전통예술은 제도권에 어떻게 진입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모순이 있나요.

**이정희** 전통예술 분야도 대회 수상이 가장 대표적 진입 방식이에요. 전통예술은 다른 장르에 비해 국공립 단체가 많은 편이라 단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 교수님과 같이 공연하면서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는 형태로 구분될 것 같아요. 전통예술은 여전히 도제식 교육이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예전에 비해 비중이 줄었고, 요즘은 창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위계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청년 예술가가 불합리와 부조리를 계속 제기하면서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근** 기관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유재하** 제도 측면에서 예비 예술인과 예술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연이나 실기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킹 자리만으로도 많은 것이 과생된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킹이 더는 예술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예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예술대 학생에게 어떤 교육이 이뤄지면 좋을까요.

**서지민** 예술대학에서 분명 뭔가를 배우는데 졸업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행정 요구 사항과 언어를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정희** 예술계 의견이 반영돼 지원서 작성 절차 간소화 내지는 예산 항목을 예술인이 작성할 수 있는 언어로 치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면 좀 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3~4학년부터 1년에 한두 과목 정도는 현장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교과과정에 편입돼야 하고요. 예술 현장에서 원하는 것과 학생이 원하는 것, 학생이 상상하는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을 학교가 만들어야 합니다.



**김근** 예비 예술인이 지역에 남지 않고 빠져나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채하** 학과의 커리큘럼 문제 같아요. 지역의 연극영화과 중에 미달되는 학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커리큘럼 때문에 휴학·자퇴·반수율이 높다 보니 입시생이 지원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지원자가 없으니 학과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해 통폐합하고요.

**김근**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내세우는 취업률 지표를 예술대학에도 적용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 문예창작학과의 경우 취업률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학과 이름에 문화콘텐츠가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권민경**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 소속 문예창작과가 예술대학의 낮은 취업률 때문에 학자금 대출 제한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라부터 예술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지 앞이 캄캄하고요. 지금 예술인에 대한 정의 자체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예술대 학생과 경력 단절 예술인은 예술인이 아니라고 표기된 것을 보면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근** 서지민님은 학과에서 취업에 대한 압박은 없나요.

**서지민** 저는 판화 전공인데요. 전통 판화 중심의 커리큘럼이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의 절반이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생각하거나 전공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김근** 현실은 체쳐놓고, 졸업하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서지민** 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저만의 콘텐츠가 생기는 게 좋아요. 그게 저만의 언어라면, 다른 분의 작업은 그분의 언어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같이 있어서 좋고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많이 보고 만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근** 마무리로 한 분씩 소감과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민경**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실시됐지만 저희는 앞이 캄캄해요. 과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 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론화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유채하** 토론 자리에 지역 예술인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서울과의 온도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킹이나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예술 분야에 진입하는 신진 예술가가 활동할 때 불합리와 부조리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다양한 안전이 많이 논의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서지민** 토론회에 대학생이나 신진 예술인을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자리가 많아지면 신진 예술인이 부담함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장도국** 광주에는 사실 예술대학이 몇 개 없는데요. 그마저도 도제식 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학이 공헌하는 형태예요. 같은 작품에 지역 예술인과 똑같이 출연해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임금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권리나 보호 문제 때문이라도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 좋겠습니다.

**김근** 장르별로 현장과 상황이 다르고 다뤄야 할 현안이나 범주가 넓어서 오늘은 단초를 꺼내는 일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이 단초가 제도와 현장에서 발아하고 자라서 많은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왼쪽부터)  
유채하  
Y&N팩토리 대표,  
권민경 시인,  
서지민  
예술대학생네트워크

## 극장의 시간은 계속된다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남산예술센터는 2009년 개관작 <오늘, 손님 오신다>부터 폐관작이 된 <휴먼 푸가>까지 12년간 119개 극단과 함께 작품 215편을 무대에 올렸다. 참여 예술가는 3,074명, 관객 수는 26만 3,015명이다. 총 공연 회차는 1,642회, 공연일은 1,448일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공공극장이 연극으로 새긴 사회적 맥락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검열·세월호·미투·교회·성소수자·장애인 등 다소 민감하지만 사회에서 꼭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사는 명멸(明滅)한다. 멸(滅)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극장도 마찬가지다.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더라도, 정신적 유산은 이어진다. 2020년 12월 31일 문을 닫은 남산예술센터가 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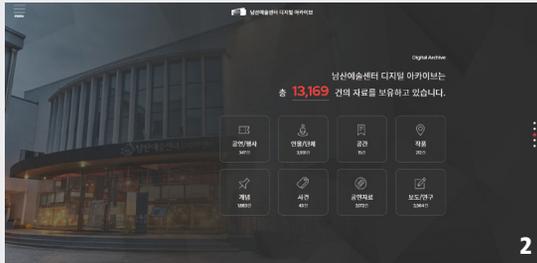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5년 남짓 극장을 잘 이끌어온 우연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실장(전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은 ‘공공극장의 책임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공공극장이라고 해서 중립적 차원이 아닌, 어떤 사안이나 사회적 의제에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 발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동아연극상 심사위원회는 ‘제57회 동아연극상’ 특별상을 남산예술센터에 수여하면서 “‘공공극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라고 했다.

### 남산예술센터는 연극인에게 어떤 의미였나

남산예술센터가 문을 닫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극장의 소유주인 서울예대(학교법인 동량예술원)가 서울시에 임대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부조리 등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사적 소유물이 된 이 공간의 공공성에 대해 다투기엔 이번 지면이 부족하다. 여기서는 작게나마 연극인에게 남산예술센터가 어떤 의미였는지 적어본다.

남산예술센터에 몸을 담았거나 이곳에서 작업한 이들은 작년 성탄절 기간에 ‘남산예술센터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를 모아 현수막을 만들었고, 센터로 향하는 오르막 길인 남산 소월길에 게시했다. 남산예술센터의 마지막 성탄절, 극장과 극장을 기억하는 모든 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





2



3

구자혜 ‘여기는 당연히, 극장’ 연출 등 남산예술센터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예술가도 작년 말 남산예술센터가 연극계에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봤다. “신진 작가 발굴과 한국 창작 희곡 초연을 지향하는 극장이라는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산예술센터는 2017년부터 작품의 아이디어를 찾는 리서치 단계부터 무대화 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모든 과정을 관객과 공유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서치라이트(Searchwright)’를 선보여 왔다. 상주작가 시스템, 초고 투고 방식, 비언어극 및 전시 공연의 시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등 꾸준히 변화를 시도한 극장으로도 많이 기억했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공간이라는 점도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다. “극장은 본래 원형무대에서 시작했다. 남산극장은 반원형 무대로 관객과 배우가 트인 공간에서 만나게 해줘 극에 대한 관객의 참여도와 극 진행의 자유로움을 함께 주는 형태의 극장”이라는 칭찬이다. 남산예술센터의 사회적 역할을 짚어낸 이들도 많았다. “새로운 시선과 시도를 담아내는 장이었으며 이후에는 반목

과 오해로 얽혀 있던 관계를 이해와 화해로 풀어내는 역할까지 해냈다”는 것이다. 특히 “나는 이 사회와 함께 있다” ‘연극으로 이 사회를 말할 거다’ ‘나는 이 사회를 이렇게 생각해요’를 선언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평도 있다.

### 디지털 아카이브로 옮겨간 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가 오프라인에서 문을 닫은 날, 온라인에서는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www.nsan.or.kr)가 문을 열었다. 지난 12년간 남산예술센터에서 펼쳐진 공연과 참여 인물, 공연의 기반이 된 희곡이나 소설 등의 정보, 극장의 역사, 공간, 공연 자료 등이 담겼다. 공연과 관련된 보도자료·연구자료 등도 포함했다.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 업체인 아트앤데이터와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업체인 (주)아이엘아이티가 협업했다. 단순히 공연과 관련된 자료의 축적뿐 아니라 모은 자료의 의미와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로 구축했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바탕으로 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해 새로운 맥락을 도출할 수 있다. 이미 방대한 자료가 구축됐지만 아트앤데이터의 정주영 대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극장이 유지됐다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했을 텐데 아쉽다. 1964년에 개관했으니(서울시가 임차하기 시작한 건 2009년) 그때부터 데이터를 더 축적하면 1960년대 이후의 방대한 ‘문화자원’이 생겨나는 거다.” 하지만 축적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새로운 연구와 창작에 활용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더 촘촘히 쌓아야 한다. 전통문화 데이터를 쌓는 작업에는 정부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만 1950년대 이후 문화자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에는 지원이 덜하다. 극작가이기도 한 정 대표는 “해외에서도 공연 데이터를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문화자원으로 가치를 따져봐도, 당연히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이재훈 《뉴시스》 기자 사진 서울문화재단

- 1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전면
- 2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화면
- 3 남산예술센터 내외부 모습 VR 감상

# 첫발 뗏지만, 갈길 험난한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의 첫 단계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11개 분야에서 종사하며, 고용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대상이 되며,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는 예술인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인데,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비롯해 실직한 예술인이라면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는다. 다만, 자발적 이직 등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

2021년 구직급여 예산에 반영된 예술인 지원분은 64억 원 수준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이 나오는 건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상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프랑스 '앙테르미탕' 제도와 비교되곤 한다. 앙테르미탕은 '불규칙적' '비정규적'이라는 뜻인데, 공연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랑스가 1969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다. 프랑스보다 50년 이상 늦었지만, 문화에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술계에서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 자체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한다.

## 예술인 생활 안정의 길 험난하리라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12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가 고용보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시행령에서 출판 분야를 제외하면서 출판 산업 외주 편집자·디자인·일러스트레이터는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작가의 경우 드라마와 예능·교양 프로그램 작가는 포함됐지만, 보도 부문 방송작가는 제외됐다.

시행일이던 10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제도 도입은 환영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취지는 좋으나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뜻이다. 정경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본부장은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이들이 대상인데,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공연은 보통 두세 달씩 연습하더라도, 실제 공연하는 날은 아주 짧다. 연습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본부장은 “장기 공연을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외에 대부분 예술 분야는 단기 계약이 주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계약서 문서 등을 거의 남기지 않는 예술계 관행도 걸림돌이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에 불과했다. 고용인이 계약을 꺼린다 해도 피고용인인 예술인이 이를 따지거나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본부와 서울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피보험자격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 내용을 검토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소득으로 대상을 정하다 보니, 저소득 예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 50만 원 기준에 관해 “노숙·사측·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가 이 기준과 월평균 소득 70만 원 기준을 두고 경합을 벌였는데, 70만 원으로 정하면 자칫 구직급여 수급액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5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業)이 아닌 취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최소 기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예술계는 이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다고 반박한다.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연간 수입은 평균 1,281만 원이었다. 그러나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한 사람이 27.4%나 됐다. ‘소득이 아예 없다’고 답한 사람도 28.8%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국내 예술인 약 17만 명 가운데 7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예술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시작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대통령 약속대로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첫발은 땀지만, 걸어야 할 길은 무척이나 험난하다.

글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 사진 뉴스스

## 주민과 공유 공간을 잇는 징검다리

### 공동체 공간 플랫폼 공간이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규모로 모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요건에 맞는 적합한 공간을 찾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품을 적잖이 팔아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시내 곳곳에 소재한 공동체 공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www.communityspace.kr)을 구축해 최근 오픈했다.

공동체 공간 유형	설명	유형수
공공시설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서울시 및 산하 기관, 자치구에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간	66
공방	공예 프로그램 등 예술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	42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주민이 마을에서 이용 가능한 도서관 공간	203
돌봄공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30
마을공간	동네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321
마을상점	동네책방, 로컬푸드 등 물품을 판매하는 공간	18
마을예술창작소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 속 예술활동으로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	60
마을활력소	(서울시나 자치구가 소유한 공간 중)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해 민주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간	43
문화공간	전시·연극·공연 등의 문화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공간	126
복지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9
주민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놀이터·독서실·유희 공간 등 인근 주민과 함께 사용 가능한 공간	108
청년공간	청소년 휴카페,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오랑 등 청년(청소년 포함)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57
커뮤니티카페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운영하는 카페 공간	110

(2021. 1. 22 기준)

공간이음에는 그동안 시에서 마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조성하거나 25개 자치구와 함께 발굴한 민간·공공 공동체 공간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공동체 공간이란 주민과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공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목적의 모임·강의·활동 등을 진행하고 지역의 커뮤니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민센터·복지관·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동네책방·공방·공유주방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모두 포함된다. 1월 22일 기준 총 588개의 공간이 등록돼 있으며, 이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 중 문화공간은 천장산우회극장·책방오늘 등 126개가 검색된다. (표 참조, 유형별 중복 등록 가능)

### 내가 찾는 공간은 어디에

공간이음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공동체 공간을 둘러보고 공간 운영자에게 문의하고 예약할 수 있다. '공동체 공간 찾기' 메뉴로 들어가면 25개 자치구별로나 13개의 유형별로 공간 검색이 가능하다. 전체 공간 목록에서는 공간별 간략한 소개와 주소 정보를 제공하며 '지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 혹은 원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 공간을 찾아보려면 지도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리하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목록(List)과 지도(Map) 버튼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클릭하면 된다.

공간별 페이지로 들어가면 공간의 사진, 간략한 소개 글과 함께 운영시간·전화번호·주소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공간은 별 모양의 '픽하기'기능을 활용해 찜할 수 있다. '공간소개' 외 '시설예약' '탐방예약' '콘텐츠' '게시판'이 개별 공간의 기본 메뉴다. '시설예약'을 클릭하면 최대 수용인원·이용시간·공간 비용·유의사항 등 상세 정보가 제시돼 있다. 예약은 '전화문의' '메일예약' '온라인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공간 운영자 회원이 등록된 링크를 통해 각 공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공간이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마이페이지의 내가 픽한 공간에서 목록과 예약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 탐방' 메뉴에서는 공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투어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다. 탐방 유형은 '투어 코스' '체험' '워크숍' '문화 프로그램' '만남' 다섯 개로 분류돼 있다. '탐방신청'을 클릭하면 개별 공간의 '탐방예약' 페이지와 연결된다. 공간 예약과 마찬가지로 세부 프로그램



1·SEOUL·U  
1981년 11월

서울특별시

우리 동네의 즐거운 내일,  
가까운 이웃과 **공간이음** 해요

마을활력소  
마을예술창작소  
공유부엌  
마을회의실

공동체 공간을 등록하고,  
필요한 공간을 예약하고,  
공급한 공간을 탐방해요.

서울시 공간이음 Q 을 검색해보세요.

www.communityspace.kr

문의 info@communityspace.kr | 070-7767-5353

공간이음 1

- 1 공간이음 홍보 포스터
- 2 공간이음 누리집 갈무리

내용을 확인한 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간 콘텐츠' 메뉴로 들어가면 각 공간에서 신규로 업데이트한 콘텐츠가 순서대로 올라와 있다. 동네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 주민과 공동체 공간이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 서울시 공유 공간 모여라

공동체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간을 무료로 등록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간이음에 공간을 등록하려면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운영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운영팀 정보와 공간 정보를 입력해 제출하면 사이트 관리자가 제출된 정보를 검수한 후 인증해 준다. 인증이 완료된 운영자 회원은 공간이음 파트너센터 운영관리 메뉴에서 운영 공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운영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의 대표자 정보로 가입한 이메일 ID,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같은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제로 운영 중인 공간에 대한 기본 정보가 필요하다. 작성한 대표자 정보와 첨부 서류의 대표자 정보가 다른 경우 승인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일반적인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등록할 수 없다. 시에서는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활용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례와 공간 운영 노하우 강의 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서울시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은 “동네 단위의 마을공동체성을 유지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에 ‘공간이음’ 플랫폼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공간 2,000곳 등록을 목표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간을 발굴해 나간다고 하니 더욱 알찬 ‘공간이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공간이음 공동체공간 찾기 공간 탐방 공간 콘텐츠 공동체공간이음! 소식

서울시

서울시 공동체공간 검색결과 (573)

전체보기

모든 공간유형 전체보기

마을예술창작소	52
마을활력소	39
마을공간	316
마을사랑	14
커뮤니티카페	107
도서관	202
복지관	39
공원	35
주민이용시설	103
공공시장	63
연안공간	56
운동장	29
문화공간	112

마을에 품겨줄래

마을공간 | 커뮤니티카페 | 환경전문

- 함께 읽고 쓰고 여객전시 감상하고 온 이쁜들과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22길 18 (세곡역) (1층) / 02-44551745  
- 운영일 : 보통아 오피스데이

다도포기

중도리학문도서관

마을공간 | 커뮤니티카페 | 도서관 | 주민이용시설

- 마을에 소재하게 자갈섬은 자갈도서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3길 97 (2기동) (1층) / 011-141-0600181  
- 운영일 : 보통아 오피스데이

소도포기

두루두루해셋

마을공간 | 도서관 | 주민이용시설 | 청년공간

- 비종교단체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릉로73길 21 (2층) / 02-4590239  
- 운영일 : 두루두루해셋

2

## 코로나블루 날리고 추운 겨울 녹이는 따뜻한 연극 두 편

### 연극 <양리할아버지와 나>와 <올모스트 메인>

연극 <양리할아버지와 나>의 주인공들은 육신각신하다가도 어느새 마음을 맞춰 서로를 이해한다. <올모스트 메인> 이야기도 비슷하게 주인공 공 사이 거리가 멀면서도 가깝다. 서로의 사랑은 멀리 있으면서 동시에 가까이 있는 걸까. 이들이 말하는 사랑의 행태는 혼란스럽지만, 두 연극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마음 한편을 따스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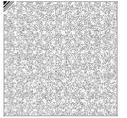
\*해당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노인과 아가씨의 좌충우돌 동거 이야기

<양리할아버지와 나> | 2020. 12. 3~2021. 2. 14 | 예스24스테이지 1관  
무대에 불이 켜지면 거실 뒤쪽 중앙에 갈색의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눈에 들어온다. '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린다. 왼쪽 팔에 깁스를 한 노인은 다림질을 멈추고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준다. 빨간색 치마를 입은 재기 발랄한 아가씨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다. 세입자 광고를 보고 왔단다. 방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노인은 문을 닫고 아가씨는 다시 문을 열고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간다. 알고 보니 따로 사는 노인 아들이 광고를 냈단다. 꼬장꼬장한 독거노인 아버지에게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묘지가 보이는 방 한 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은 것이다. 시골에서 상경한 아가씨는 저렴한 월세에 혹해 필사적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70대 노인과 20대 아가씨의 '좌충우돌 동거'가 시작된다. 노인의 이름은 양리(신구·이순재), 아가씨의 이름은 콘스탄스(박소담·권유리·채수빈)다. 프랑스 파리가 배경



연극 <양리할아버지와 나> 중 콘스탄스(박소담)와 양리(신구)



이지만 대한민국 서울이 무대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동거물의 공식이 있다. 처음엔 '마지못해' 같이 살고, 실 새 없이 티격태격하다가 마지막에야 사랑을 확인한다. 앙숙처럼 으르렁대는 전반부엔 유쾌한 웃음이 터지고, 어느새 서로에게 물들어 간 후반부엔 감동이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 연극도 마찬가지다. 동거물엔 으레 계약서가 등장하는 법. 30페이지가 넘는 깐깐한 계약서에서 양리 할아버지가 내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피아노를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늘 깨지기 마련. 호기심 많은 콘스탄스가 어느 날 건반을 치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며느리가 죽도록 싫은 양리는 이를 기회로 콘스탄스에게 아들을 유혹해 달라는 '막장 제안'을 한다. 양리와 콘스탄스가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솔직한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면서 가족 같은 관계로 나아간다. 양리는 '말뚝에 묶인 서커스의 코끼리' 이야기를 해주며 콘스탄스의 꿈을 응원해 준다. 어릴 때 밧줄에 묶여 있던 코끼리가 충분히 자랐는데도 말뚝을 뺏고 서커스단을 탈출할 생각을 못하는 것은 '나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인생은 성공하거나 실패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냐, 사랑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느냐지." '촌데레' 양리의 마지막 말이 극장을 나오면서 귤가에 맴돌았다. 2012년 프랑스에서 초연된 이 연극은 2017년 국내 초연 후 꾸준히 사랑받아 온 힐링극이다. 탄탄한 연기와 배우 4명이 벌이는 환상적인 호흡에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는 아홉 편의 이야기

〈올모스트 메인〉 | 2020. 12. 25~2021. 2. 14 | 대학로티옴

어느 겨울날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청춘 남녀가 벤치에 앉아 있다. 아직은 어색한 듯 둘은 벤치 끝과 끝에 앉아 있다.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여자. 부끄러운 듯 남자도 사랑한다고 수줍게 말하지만 이내 단단한 눈뿔치를 들고서는 이상한 말을 건넨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얘기다. 지구라는 거대한 공을 놓고 볼 때 서로가 거리를 좁힐수록 나머지 거리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 말에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여자. 첫 번째 커플의 이야기다.

다시 불이 켜진 무대에 등산복을 입은 오로라 관광객이 등장한다. 그녀는 다짜고짜 관광지도 아닌 개인의 집 마당에 캠핑할 태세를 갖추면서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인다. 그러다 수리공 집주인이 느닷없이 사랑을 고백한다. 조각난 심장을 봉지에 넣고 다니는 여자는 심장이 고장 났다고 말하는데.



연극 〈올모스트 메인〉 공연 장면

한 편에 10분 정도. 아홉 편의 이야기를 엮은 이 옴니버스 연극은 현실적이면서 초현실적이다. 깨진 심장을 가지고 다니는 설정이나 사랑에 실패한 뒤 1년 만에 몸이 왜소해져 전 연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등이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올모스트 메인'이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지기에 더욱 풍성하게 느껴진다. '올모스트 메인(원제 Almost, Maine)'은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동북부 메인주의 가상의 마을 이름이자 연극 제목이다. 겨울에 춥기로 유명한 이곳은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전 여자 친구를 바에서 우연히 재회한 남자, 권태기에 빠진 중년 부부, 절친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 떠난 남자를 다시 찾은 여자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 비록 미국이 배경이지만 아홉 커플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 어느 대목엔 분명 '내' 얘기가 숨어 있다. 객석으로부터 공감과 웃음을 이끄는 요인이다. 〈올모스트 메인〉은 미국 배우 겸 극작가인 존 카리아니의 작품이다. 2004년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초연됐으며 2006년 오프브로드웨이로 뉴욕 맨해튼에 상륙했다. 초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이며 20여 개국에서 상연되는 레퍼토리로 발전했다. 국내에서도 〈올모스트 메인〉은 대표 로맨틱코미디 공연이며, 이번엔 '블랙비' 멤버 피오가 결성한 '극단소년'이 제작했다. 20대 배우들이 꾸민 무대는 상큼하고 풋풋하다.

2015년에 창단된 극단소년은 한림연예예술고 1기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젊은 극단이다. 연출가 이치민은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내딛는 '한 걸음'에 응원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글 이향휘\_《매일경제》기자 사진 제공 파크컴퍼니, 극단소년

## 향후 최소 10년 동안은 보기 힘들 전시

전시 <빌 비올라, 조우>와

<장 미셸 바스키아: 거리, 영웅, 예술>

미술관에서 열리는 한 작가의 개인전은 한 번 열리면 수년간은 다시 보기 힘들다. 갤러리 전시와 달리 미술관 개인전은 한 작가의 작품 세계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변천사를 훑어보는 것은, 그 작가의 개인 미술관이 있지 않은 한 흔치 않은 기회다. 게다가 대표작들은 각 기관이나 소장가에게 흠어져 있으니, 기획자가 노력해 작품을 모아 온다는 것도 미술관 전시만의 특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년이 아닌 향후 '최소 10년' 동안은 보기 힘들 전시를 모았다. 부산시립미술관의 '빌 비올라' 전과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바스키아' 전이다.

※ 해당 전시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엘제리드호 (빛과 열의 초상) Chott el-Djerid (A Portrait in Light and Heat), 1979

### 미디어 아티스트와 만나다

<빌 비올라, 조우> | 2020. 10. 21~2021. 4. 4 | 부산시립미술관

미술계에서는 건강 문제로 작가가 살아 있을 때 볼 수 있는 마지막 전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보다는 비올라의 초기작부터 최근 영국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 들어간 작품까지 훑어볼 기회라는 점이 중요하다.

미디어 아티스트인 빌 비올라는 1970년대 비디오 촬영 기법의 실험적 활용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이주>(1976) <투영하는 연못>(1977~1979) <엘제리드호(빛과 열의 초상)>(1979)이 그러한 예다. 영상을 극도로 클로즈업하고, 아주 느리게 재생하거나, 합성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다.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요즘 시각에선 새롭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 당시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 조금은 필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는 것은 바로 같은 공간에 자리한 이우환 작품과 비올라 작품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다. 단순히 기술을 활용한 것 같은 작품들이, 이우환의 <만남의 미학>과 마주하면서 철학적 의미가 부여된다. 눈보라가 치는 듯한 새하얀 화면 위의 점이 선불교의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미학과 큐레이팅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5년 이후 작품은 미술관 본관에서 만날 수 있다.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인 <인사>와 영국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 영구 설치된 <순교자>(2014) 시리즈, 다섯 편의 영상으로 이뤄진 대형 설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간다>(2002) 등이 있다. 미술관 공간을 넓게 활용해 큰 화면으로 작품을 볼 수 있어 좋다. 다만 미술사의 캐넌인 르네상스 종교화에서 모티프를 따온 설정은 다소 식상하게 느껴진다. 그런 점에서 한 작가가 평생 동안 어떤 아이디어로 작품을 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전시다.

### 생생한 충들의 언어를 그린 예술가

<장 미셸 바스키아: 거리, 영웅, 예술> | 2020. 10. 8~2021. 2. 7

롯데뮤지엄

1980년대 뉴욕은 대중문화가 꽃피우고, 개개인의 욕망이 화려하게 폭발했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흡수해 탄생한 천재 예술가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라피티'나 '흑인' '요절' 등의 키워드가 때로는 작품의 탁월함을 가리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다. 그런 수식을 건너내고 우선 작품을 마주한다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Victor 25448 ©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 Licensed by Artstar, New York

이 전시는 롯데뮤지엄이 개관(2018) 전부터 공들여 쌓은 레퍼런스 덕분에 성사된 전시다. 미술관 측은 바스키아 개인전을 미술관의 '하이라이트'로 만들고자 했다. 2019년 런던 바비칸센터·파리 루이비통 미술관 등 쟁쟁한 기관을 거친 '콧대 높은' 예술가 바스키아를 모셔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롯데뮤지엄 개관전으로 댄 플래빈부터 알렉스 카츠 등 유명 작가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열며 미술관은 조금씩 바스키아 개인전에 가까이 다가갔다.

결국 2019년, 바스키아 작품을 다수 소장한 딜러 겸 컬렉터 호세 무그라비와의 계약으로 전시는 성사됐다. 다양한 곳에서 작품이 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스키아 원화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기회다. 바스키아의 초기 그래피티를 담은 사진과 앤디 워홀

과의 합동 작품, 생전 그의 모습을 담은 다큐와 사진까지 정성 들여 준비한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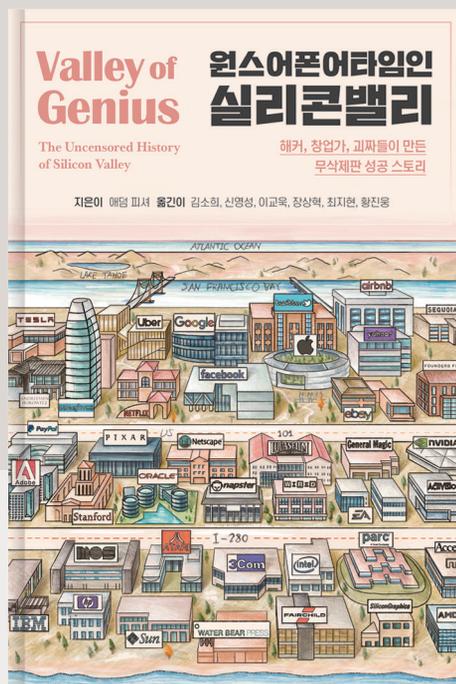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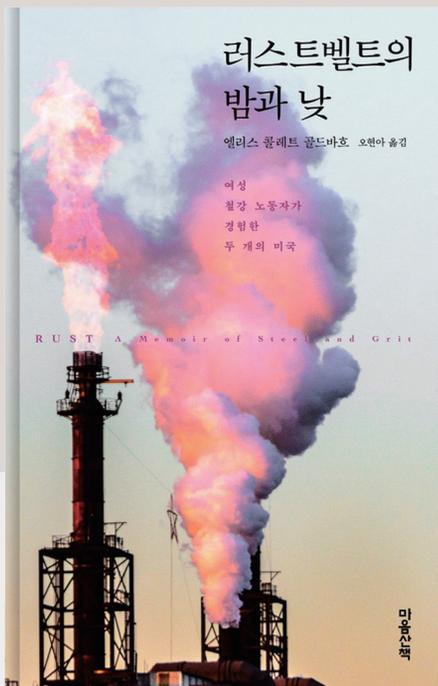
회화·드로잉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사진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조형 언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Victor 25448>은 바스키아의 사망 1년 전 작품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작가의 감정을 더듬어볼 수 있다. 제목은 모잠비크 출신 재즈 가수 알 볼리의 <Little Old Lady> 레코드판 일련번호를 차용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미술사, 예술가 등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차용해 고유의 언어를 만들어간 과정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생한 충동의 언어를 비행기가 아닌 지하철만 타고 가셔도 볼 수 있다니 놓치기엔 너무 아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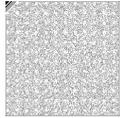
글 김민 <동아일보> 기자 사진 제공 부산시립미술관, 롯데뮤지엄

## 두 개의 미국을 만나다

책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과  
《원스어폰어타임인 실리콘밸리》

미국은 광활한 나라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돈과 인력을 빨아들이는 실리콘밸리가 있는가 하면, 중공업 지대에 들어선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는 러스트벨트도 있다. 정치 성향도 인종 구성도, 경제 여건도 판이한 두 지역이다. 지난해 말 대선을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이 둘로 갈라진 미국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나란히 나왔다.





## 철의 공장에서 배운 신성한 노동의 가치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 | 엘리스 콜레트 골드바흐 지음

오현아 옮김 | 마음산책

엘리스 콜레트 골드바흐도 러스트벨트 출신 노동자다. 29세에 아르셀로미탈 클리블랜드 제철소에 취직했다. 제철소에서 유틸리티 노동자 6691번으로 불렸다. 《러스트벨트의 밤과 낮》은 1986년생 대졸자,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진보주의자, 밀레니얼 세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제철소에서 저자가 겪은 노동의 실체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책이다.

러스트벨트에서 자란 저자에게 유황 냄새를 풍기는 제철소는 과거의 유산이었다. 고향에서 탈출하려 애썼지만 영문학 학위는 취업에 쓸모가 없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불어나기만 했고, 죽은 쥐가 우글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페인트칠로 밥벌이를 해야 했다. 제철소의 일자리 제안에 고민도 없이 승낙한 이유다.

1,500도의 쇠물이 흐르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강철이 만들어지는 제선과 제강 과정은 어마어마한 소음을 동반했다. 신입들은 코일을 조심하라는 말만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다. 여성으로서 고충도 많았다. 일하다 타박상을 입어도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됐다. 강하지 않으면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 남자들은 여성 노동자를 회사가 채워야 하는 할당량으로 봤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고, 특히 맨스플레인을 했고,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

강철은 겸손을 배우게 했다. 두 개로 갈라진 미국의 현실을 배우게 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때론 목숨을 빼앗는 기계 앞에서 동료애를 배웠다. 무엇보다 뼈저리게 배운 건 노동의 신성함이었다. 더럽고 뜨겁고 시끄럽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이곳에서 만드는, 압력에 부서지지 않는 수백만 톤의 강철이야말로 만드는 과정이 화려하진 않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저자는 대학 영문학 강사가 되며 제철소를 떠났지만, “철강 노동자로 살아가는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자신감과 재정적 안정으로 삶에 주인 의식을 되찾아 줬고, 가난과 성폭행과 병의 상흔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유에서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시간, 제철소에서 보낸 한 시절을 문학적 문체와 깊은 성찰로 그려낸 보기 드문 논픽션이다.

## 괴짜들이 만든 문화, 미래를 만든다

《원스어폰어타임인 실리콘밸리》 | 애덤 피셔 지음

김소희 외 옮김 | 워터베어프레스

오래전에 실리콘밸리는 목가적이며 심심하기만 한 교외 지역에 불과했다. 이곳이 어떻게 ‘미래’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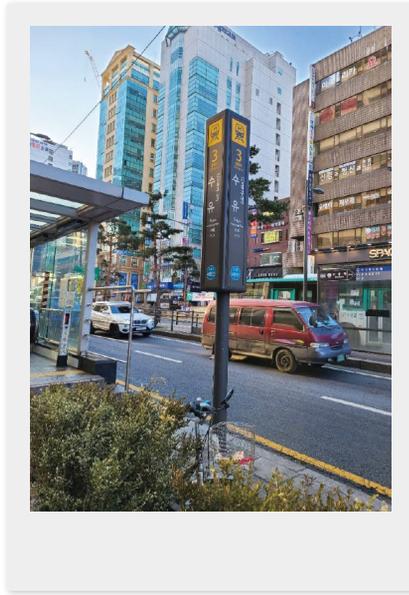
애덤 피셔는 이 지역이 다양성을 포용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가 만들어진 것에서 이유를 찾는다. 이곳에선 거의 모든 이가 어린 시절 컴퓨터나 게임을 접하고, 해킹이나 컴퓨터에 폭 빠져 컴퓨터과학이나 전자공학을 공부한다.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며, 기술을 중시하고 데이터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 현실의 문제점을 고민하면서도 이상적인 꿈은 놓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똑똑하고 유쾌하게. 한마디로 너드(Nerd) 문화다.

제목이 뜻하는 그대로 이 책은 실리콘밸리에서 신화를 쓴 기업들의 창세기로 빠르게 채워졌다. 1968년 더글러스 엥겔바트가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선보인 데모(demo)로 시작해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차고에서 애플을 세운 일,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잭 도시의 트위터가 성공하기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복원해 낸다. 마법의 순간을 직접 마주한 사람 수 소문해 200명이 넘는 이들을 인터뷰한 기록을 담은 이 책은 실리콘밸리가 어떤 문화와 특징을 갖게 됐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준다. 그것도 인터뷰이 200여 명이 일제히 등장해 한자리에서 수다를 떠는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말이다. 트위터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는 도시 문화에 주목한다. 기술 기업이 점차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다 보니, 사람들도 점점 도시로 몰리게 됐다는 것. 예술가이면서 엔지니어인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 터를 잡고 도시 자체를 진화시켰다.

이 난상 토론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인터넷 혁명의 중심에 있던 기업들도 초라하게 시작했으며, 끝없는 내외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거나 도태됐음을 알게 된다. 넘어지지 않은 신데렐라도 없었다는 사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았다. 현대인의 필수 교양이 된 실리콘밸리를 깊숙이 이해하기에 더없이 좋은 참고서다.

글 김슬기\_《매일경제》기자 사진 제공 마음산책, 워터베어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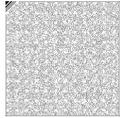
## 동업자끼리 공장이라고 말하는 작업실을 가졌다



수유역 3번 출구

1990년대 중반, 강북구청이 있는 수유 사거리는 강북권의 변화가였다. 의정부·고양·포천 등으로 가는 시외 버스 정류장도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었고, 커다란 종합병원도 근처 길가에 있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없는 게 없는 먹자골목. 실컷 먹고 마신 뒤 일상을 던져버린 일탈의 해방감에 젖은 채, 헤어짐이 아쉽고 싫은 사람들. 그러고도 미진한 흥을 풀자고 우르르 몰려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과 카바레 와 나이트클럽에 여관, 호텔도 존재를 알리느라 네온 간판을 깜빡이고 있었다. 무법천지의 기운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시간은 거의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마지못한 듯 잤아들었다.

1985년 4호선이 개통되고 몇 차례 연장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변해갔다. 모든 지하철 정거장엔 그곳으로부터 좀 떨어진 마을까지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마을버스가 있었다. 시내를 오갈 때 이용하는 지하철이 개통 열 돌쯤 지났을 무렵, 동업자들이 오로지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방을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나도 공장을 한 칸 마련했다. 바로 그 변화가의 중심, 지하철역사와 연결된 빌딩으로, 그땠엔 근처에서 가장 높았다. 공간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집에 있어도 글을 쓸 수 있는데 가족이나 가정으로부터 걸어서 한 시간 남짓, 차



로는 10분이 채 안 걸리는 곳으로 나오자 경험하지 못한 해방감과 독립감이 내면에서 살아났다. 책들을 옮기고 옷가지들도 가져다 놓고 끼니를 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그릇들이나 밥솥에 자그마한 냉장고도 들어 놓았다. 그냥 이곳에서 평생 혼자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거의 황홀한 기분에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고백하기 창피한 것이 있는데 결혼 이후, 나는 늘 소설 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시달리는 편이었다. 가정을 가지기 전부터 직업작가였는데 결혼이란 제도로 들어가자 새로운 역할이 마구 생겼다. 작가로서의 내 일을 하자면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더 넓게는 대가족으로부터 몰래몰래 시간을 훔쳐 쓰는 것 같았다. 심지어 작가로서 번 돈의 상당한 부분이 집안 살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이걸 나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걸까? 나는 기질적으로 비굴한가? 잘 살펴보면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다. 첫째, 소설가 머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부장의 선언이 있었고, 몇 년이 지난 뒤, 아이를 낳은 후에, '소설이나, 결혼생활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 사건도 겪어야 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비굴해졌을까? 대략 이때로부터 스물 몇 해가 흐른 뒤에 그런 조건들과 결별하게 됐다. 그 첫날 밤, 다소 험한 방안이었지만 혼자 누워 '아, 이제 나는 소설과 결혼했다'란 각성이 싱그럽게 밀려들던 기억이 난다. 그 개운함이라니! 따뜻한 기운으로 감돌던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랬다. 아침에 반찬을 싸 들고 집에서 나오면 수유역 가는 마을버스가 있었지만 거의 택시를 탔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 일본일초라도 빨리 공장에 가고 싶어서. 내가 나 혼자로서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역에서 내려 승강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서 열쇠로 문을 열면 방 안의 모든 것이 나의 모습으로, 나의 기운으로 반겼다. 내가 존중해 마지않는 평화(平和)였다. 이 벽찬 기운과 만나려고 촌각을 다 튀 이곳으로 왔다. 어제 쓰다 만 소설의 장면들, 그리고 오늘 이어갈 장면들이 샘솟았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음악을 틀었다. 이즈음 쓰는 소설의 주제가 같은 것이었다. 신문에 연애소설을 쓰고 있었으므로 감정이 애절해야 했다. 애절하기로 브람스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걸맞은 편이었다. 그리고 하루에 쓸 만큼 만족스럽게 썼을 때, 혼신을 다해 몸이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닿았을 때, 세속의 모든 때가 벗겨졌을 때, 그래서 투명한 해방감으로 자유로울 때 베토벤의 9번 교향곡 3악장을 들었다. 이걸 듣고 싶어진다는 건 오늘 쓴 글이 만족스럽다는 의미였다. 침대에 군드러져서 음악을 듣고 또다시 되풀이해 들어야겠지만 공장문을 닫고 나섰다. 문을 나서자마자 아주 만족스럽게 썼다고 생각했던 어떤 문장, 묘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깨달아진다. 지친 몸이 더 처지지만 깨달은 것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집으로 가는 여러 골목을 걷는다. 어떤 날은 가는 길에 삼계탕을 잘하는 식당 살구나무집에 들른다. 주인은 간(肝)이 탄 듯이 새카매진 내 얼굴을 보고 이미 다 안다. 탁자 옆에 눕다시피 구부리고 있다가 삼계탕을 먹는다. 삼계탕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몸이 조금씩 기력을 되찾는 게 느껴진다. 계산할 때, "얼굴색이 돌아왔다"고 주인이 말한다. 기운을 차리고 집으로 가는데 또다시 떠오르는 생각. 삼계탕 한 그릇이 내 소설책 한 권 값과 맞먹는다는 사실. 누군가 책을 한 권 산다는 건 삼계탕 한 그릇을 포기한다는 것. 그렇다면 내 소설은 독자에게 삼계탕 값을 하나? 이 단순한 의문은 나를 조금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이후 '소설로서의 기능을 다 했다' 같은 검열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이후의 글이 그런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 애쓰고 애쓰는 중이다.

글·사진 이경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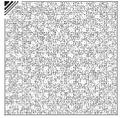
## 봄,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

2021년 봄을 맞이하는 마음



나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고장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린 시절, 눈이 잔뜩 쌓여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는 겨울은 두세 번 경험한 게 고작이었다.  
그렇다 보니 겨울이라 하더라도 눈이 가득 내린 풍경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그보다는 동네에서 팔던 군고구마나 군밤, 따뜻한 전기장판이나 굴을 까먹는 시간 정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보통이었다.





눈이 없던 겨울을 주로 보내다 보니, 눈이 녹고, 냇물이 흐르고, 개구리가 깨어나는 봄에 대한 연상도 조금은 덜 생생한 데가 있다. 일단 내가 살던 고장에서는 겨울에 아무것도 얼지 않는 게 보통이었으니, 봄이 와도 인상적으로 녹아내릴 만한 고드름은 딱히 없었다.

그보다 봄은 언제나 도둑처럼 왔는데, 어느 날에는 그저 더는 내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전기장판을 켜는 게 다소 덥게 느껴졌으며, 다시 학교를 가야 할 즈음 등갓길에 핀 개나리가 비로소 봄을 알려준다고 느꼈다.

어쩌다 보니 2020년에 나는 다시 나의 '옛 고장'에 머물렀는데, 역시 봄은 도둑같이 찾아왔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창 코로나 사태가 대두되던 즈음이라, 벚꽃놀이 같은 나들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면서 나들이다운 나들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봄도, 여름도, 가을도 온 것인지도, 간 것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저 겨울만이 길고 길어서, 늘 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기 마련이었고, 으레 한 해의 설레는 시작, 반가운 계절의 시작 같은 말은 다소 사치였던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올해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는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봄이 오더라도, 봄이 온지도 모르게, 봄을 누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흘러갈지도 모른다. 마치 내가 살던 고장의 봄이라는 게 그와 비슷했듯이, 그렇게 어느 계절이 왔다가 슬그머니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쩌서인지 올해만큼은 조금 더 선명하게 지나가는 계절을 느끼고 싶고, 삶을 조금은 새로운 지평 위로 올려두고 싶고, 크고 작은 설레는 일들로 삶을 채워 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 운동 고립과 격리, 경계와 거리두기로 채워졌던 지난해에 대한 반작용 때문일지도 모른다.

### 잃어버린 봄을 스스로 짓다

아마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생활하며 내 몸에 혹여나 나쁜 바이러스가 닿지 않았는지 걱정하고, 나를 발산하는 시간을 갖기 보다는 안으로 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애쓰는 나날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오는지 아닌지 모르게 오곤 했던 내 고장의 봄처럼, 그렇게 조금은 다른 표지들에 주목하면서 삶의 새로움을 찾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고 싶다. 나뭇가지 끝에 돌아난 작은 새싹이나, 조금 훈훈해진 바람이나, 하나둘 바뀌어가는 상의와 하의의 종류처럼 새로운 시작을 붙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올해 봄은 조금 더 특별했으면 싶다. 기나긴 겨울을 땀어가면서, 오랫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그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싶다. 여전히 작년처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 이어진다면,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라도 새로운 만남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서로의 글을 나누고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마음이 마냥 고립되지 않게 이어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싶다. 그렇게 마냥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새해에는 일 년 내내, 봄이 가득한 느낌으로, 항상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봄을 누리는 마음으로 지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본디 계절이란 원하던 원치 않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려왔다가 슬며시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어쩌서인지 올해는 스스로 계절을 지어가며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그런 계절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어쩌면 많은 이가 잃어버린 봄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봄을 지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작년이 통째로 차가운 겨울과도 같았다면, 올해는 봄이 되고, 내년은 여름이 되어 그렇게 조금씩 삶도, 마음도, 세상도 회복한다면 좋을 듯하다. 어떤 시절에는 한 해에도 수십 번의 겨울이 몰아치는 때가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해에도 여러 번의 봄이 오고가듯이 그렇게 새롭게 피어남이 가득한 한 해도 있기 마련일 것이다.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해는 틀림없이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올해가 그럴지도 모르고 말이다. 올해를 그런 한 해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다.

글 정지우\_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 새로운 모습으로 봄을 맞이할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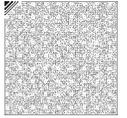
내게로 오는 공원 ⑥ 다시 통의동 마을마당



통의동 마을마당으로 시작한 연재를 통의동 마을마당으로 마무리한다.  
그사이 통의동 마을마당은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다. 2020년 봄에 진행된 재조성 사업의 결과다.  
역사의 길목에서 시민이 지킨 공원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겨울을 맞고, 봄을 기다린다.



새로 조성된 통의동 마을마당에서 박사 작가가 진행한 낭독회 '나무의 시간'



1997년에 조성된 통의동 마을마당은 이미 20년이 넘어 재조성 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예산도 책정돼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됐다. 민간에게 매각되면서 재조성 사업은 중단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통의동 마을마당을 다시 매입하면서 사업이 진행됐다. 대표 조경 설계회사 중 하나인 동심원에서 설계를 맡았다.

동심원에서는 통의동 마을마당을 구하는 데 앞장선 공사모(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와 만나 그간의 경과를 자세히 묻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통의동 마을마당을 둘러싼 그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2020년 봄 내내 진행됐고 초여름 무렵에 마무리됐다. 이전 통의동 마을마당은 농촌의 마을 어귀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으나 재조성된 결과는 재료나 조형이 훨씬 절제된 도시적 세련미가 넘쳤다.

공사 과정에서 정자는 철거됐으나 그간 거목으로 성장한 느티나무는 그대로 두었다. 잔디를 한 화강석이 벽체와 화단의 주재료로 사용됐는데, 길 건너 경복궁 사괴석 담장과 같은 재료지만 마감과 디테일이 달라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다. 바닥은 마사토로 마감하되 공법에 약간 변화를 줘 전체적으로는 투 톤으로 느껴진다. 개념적으로는 평지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형 조건을 이용, 완만한 경사의 램프를 군데군데 넣는 등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도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했다.

조명 디자인도 대폭 향상됐다. 이전에는 색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밤이면 마을마당 전체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다. 재조성 결과 색온도가 내려가고 군데군데 상향등을 설치해 이제 밤이 되면 오히려 더 포근한 느낌이 든다. 수돗가와 함께 작은 연못도 조성해 그 안에 수생식물을 식재했다. 처음에는 과연 잘 자랄까 여러 사람이 우려했으나 자연의 힘은 위대해 수생식물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소에 이름표가 달렸다! 이전 통의동 마을마당에는 아무런 표지도 없었다. 지나가면서 보면 아무 이름도 없는 장소였던 것이다. 주택가 한구석의 작은 공원에도 하나하나 표지석이 있는 것에 비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재조

성 공사를 하면서 경복궁을 마주 보는 낮은 담장에 '통의동 마을마당'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이제야 이 공원의 이름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불러주기 시작한 것이다.

### 시민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공원

재조성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는 이 장소를 최대한 즐기는 일이 남았다. 공사모는 통의동 마을마당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세계적 가구 회사인 놀(Knoll)사가 제작한 해리 베르토이아(Harry Bertouia)의 야외용 의자 6개를 기부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2020년 5월 25일부터 페이스북에서 기금 조성 캠페인이 시작됐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도 기금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돼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 440만 원을 채웠다. 시민 21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공사모는 의자를 설치하는 행위에 공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종로구청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자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기리는 작은 스테인리스 명패가 6개 의자 모두에 부착됐다.

2020년 6월 19일 늦은 오후, 새로 조성된 통의동 마을마당에 마스크 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좌석이 마련됐고 기금으로 구입한 6개의 해리 베르토이아 의자도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작가이며 낭독가인 박사 씨가 진행하는 '나무의 시간'이란 이름의 책 낭독회가 열린 것이다. 통의동 마을마당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행사였다. 초여름 부드러운 저녁 햇살 속에 시작된 낭독회는 어두워져서야 끝났다. 나무와 관련된 여러 편의 글이 낭독됐다. 낭독회 말미에는 6개 의자를 기증하는 작은 행사가 진행됐다. 그간의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재조성 사업의 설계를 맡은 동심원의 안계동 대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모두가 흐뭇하고 모두가 명예로운 자리였다.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소공원이 된 통의동 마을마당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통의동 마을마당은 첫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멀지 않았다.

글·사진 황두진\_건축가,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 시절의 기억, 그 시간의 그리움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되는,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상자 속 인형처럼 시절은 기억이라는 상자에 담겨

어딘가에 살아 있다. 쫓기듯 떠나온 집과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의 쓰린 아픔도

기억이라는 상자에 담기면 꼴짝 뛰어 들고 싶어질 만큼 폭신폭신하고 몽글몽글한 감각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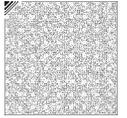
그곳, 그곳의 삶, 그리고 몽툰하게 끊어낸 그 시절 속 사람들이 어쩐지 정겹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납작하게 웃던 할아버지도, 염치 때문에 괜찮지 않았던 시간도,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큰 창피함에 달아났던 언덕에서 몰아쉬던 가쁜 숨도

그리움으로 속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이 마법 같은 단어, '시절'이다.





### 그 시절의 기억을 그리워하다

옥주(최정운)는 남동생 동주(박승준), 이혼한 아빠(양홍주)와 함께 여름방학을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다. 짝퉁 브랜드 신발을 파는 아빠의 돈벌이가 신통치 않아서인 것 같지만 낡고 작은 집을 떠나 이층 양옥집에서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건강이 나빠진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고모(박현영)까지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여름의 그 시절이 시작된다.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은 제목처럼 남매가 겪는 여름 한 철을 무덤덤하게 담아내는 영화다. 영화에는 두 남매가 나온다. 아빠와 고모, 그리고 옥주와 동주 남매다. 할아버지 집에 모인 어린 남매와 이혼을 겪었거나 앞둔 남매는 가끔 토닥거리지만 다시 서로를 위한 든든한 가족이 된다. 윤단비 감독은 문득 그리워지는 시간, 별것도 없는데 아련해지고야 마는 우리의 어떤 시절을 상자 안에 가득 담아 관객 앞에 툭 던진다.

그 속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작은 텃밭에서 따 올린 고추의 질감, 입안에서 툭 터지던 방울토마토의 식감, 등그렇게 등 돌리고 앉았던 어깨, 머리카락 위로 피어오르던 담배 연기, 어려서 어리석게 저지른 실수들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스며든다. 답답하고 싫지만 미워하진 않았던 가족과 언제나 많이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이 그 속에 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그 시절을 피해 달아난 것 같지만, 그곳에 동그마니 남은 것 역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 그 시간의 그리움을 기억하다

가족이라는 화두에는 어쩔 수 없이 오래 묵은 군내가 난다. 그래서 미간을 찡그리게 되지만 다시 찾게 되는 묘한 맛의 발효 음식 같다. 지긋지긋하지만 기억이라는 덩어리 속에는 묘하게 그리움이 담긴다. 달아난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돌아와 있는 그 덩어리는, 멀리 던져버렸다 생각했는데 언젠가 내 손에 쥐어진 부메랑 같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기억에는 보들보들 정서적 위안이 되는 복숭아 껍질 같은 촉감이 남아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남매의 여름밤>은 삶과 죽음, 염치와 현실 사이의 이치를 알아가는 어린 남매의 성장영화이면서 제 삶 하나 제대로 어찌지 못하는 늙은 남매가 그럼에도 살아보는 이야기다. 아빠와 고모 남매를 보고 있으면 옥주와 동주 남매의 미래처럼 보인다. 감독은 결핍 있는 평범한 두 남매 사이에 가족의 '죽음'을 덩덤하게 녹여낸다. 사실 누구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어른이 된다고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는다. 삶은, 그리고 갑자기 맞아야 하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서투고 어색하다.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지 않은 듯한 연출, 하지 않은 듯한 연기 그 자체다. 윤단비 감독이 그려내는 인물들은 특별하지 않다. 딱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처럼 보이는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선량하지만 딱 그만큼 이기적이고, 또 그만큼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래서 그들의 여름은 맑지도 어둡지도 않은 색감처럼 특별한 기승전결 없이 흘러가는 단편의 덩이다. 무덤덤한 일상 속에 가끔 사랑의 설렘과 가족의 죽음이 끼어들지만 삶은 휘청대는 법 없이 무덤덤하게 흘러간다.

철없는 삶과 덧없는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리움인지, 그리움에 대한 기억인지 영화는 묻는다. 결국 되돌아와 의지하게 되는 할아버지의 집처럼, 우리의 과거는 단단하고 낡은 집처럼 아늑하고도 아득하게 우리의 마음에 벽을 친다. 영화의 도입부 낡은 집을 떠나 할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 승합차를 카메라가 훨씬 앞서 달린다. 주인공들은 카메라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진다. 어쩌면 허덕대며 뒤쫓거나, 할딱대며 달아나려 했지만 시간보다 한 발짝 늦었던 그 시절의 나처럼 보인다.

### <남매의 여름밤>(2020)

감독 윤단비

출연 최정운(옥주 역), 양홍주(아빠 역), 박현영(고모 역), 박승준(동주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21 서울문화재단

# 청년문화크리에이터 모집 공고

2.1.(월) - 2.19.(금) 18:00 (총 19일간)

서울문화재단 <청년문화크리에이터>는 영상에 특화된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 전문 크리에이터로 함께 성장할 청년문화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

# WEBZine<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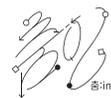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http://sfac.or.kr/literature)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http://sfac.or.kr/theate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http://sfac.or.kr/dance)

---



# 힘이 되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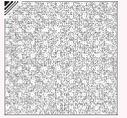


〈쓰다〉 37호 포스터

어느 여름 새벽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던 나는 전자책으로 《체공녀 강주룡》을 읽기 시작했다. 새벽이 금세 지나고 단단한 아침이 밝았으며 강주룡과 함께 달라진 내가 전자책을 내려놓았다. 책을 읽고 흥분한 마음에 아침잠도 낮잠도 있었다. 기분이 좋아서 다른 더 훌륭한 책을 읽고 싶을 뿐이었다. 《체공녀 강주룡》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공농성을 벌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책에서 찾는 의미가 독자마다 다르겠으나, 나에게서는 강한 여자가 사랑받는 이야기였고 강해서 사랑받아 마땅한 여성의 이야기로 읽혔다.

작가 박서련의 신작이라면 이제 모든 일을 덮어두고 읽는다. 그의 두 번째 단행본 《마르타의 일》은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는 언니 이야기다. 언니를 돕는 건 역시 또 다른 언니. 그리고 2020년 여름 그의 세 번째 단행본 《더 설리 클럽》이 출간됐다. ‘설리 클럽’은 ‘설리’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할머니들의 모임이다. 이 장편소설은 집단의 유일한 젊음이 ‘설희’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인공 설희의 연애를 옆에서 돕는 개성 넘치는 ‘설리’들의 우정을 다룬다. 여성이 여성을 돕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근사한 것인지 감탄하게 하는 책이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장르의 경계마저 허무는 박서련의 소설은 매번 우리를 매혹하며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그의 모든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여성이 지닌 어떤 강인함에 초점을 맞춘다.

2021년 웹진 [비유] 신년호에 박서련의 소설 《거의 영원에 가까운 장국영의 전성시대》가 실렸다. 나로선 제목만 보곤 그 어떤 내용도 추측할 수 없었다. 이 단편의 장르는 SF이고, 주인공은 물론 여성이다.



맹순영은 배우다. 아직까지 주연을 맡은 적은 없지만 주연이었던 적이 없다고 해서 배우가 아닐 리 없다. 주연은 커녕 배우로서 스크린에 노출된 시간을 초당 밥알 한 알로 환산할 때 맹순영의 출연 시간은 아무리 끌어모아도 밥 한술이 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맹순영은 배우다. 이 사실은 영원히 또한 매 순간 맹순영의 자존과 자조의 양가적인 근거가 된다.

#### 박서련 <거의 영원에 가까운 장국영의 전성시대> 부분

이야기는 단역배우 맹순영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우리는 단역배우의 삶이 어떠한 그들을 거느리는지 얼마간 짐작할 수 있다. 소설에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바, 그들은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묵묵히 자기라는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위치라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감내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단역배우의 일상은 우리 주변의, 특히 젊은 여성들의 그것과 별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 멋지고 화려한 주인공이 스쳐 지나는 한낱 '배경'으로서, 고작 육교 건너는 역할을 맡은 단역배우 맹순영의 모습은 어쩐지 익숙하기만 하다.

어느 추운 밤, 그는 자취방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오르다 캐스팅 제안을 받는다. 미래에서 온 캐스팅디렉터에게, 그것도 장국영의 상대역으로 말이다. 그 디렉터는 강조한다. 맹순영이야말로 장국영의 상대역으로 '역사상 가장' 어울리는 배우라고. 이 상황은 맹순영의 단순한 꿈이나 망상일 뿐일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맹순영 씨야말로 장국영 씨의 상대역에 사상 가장 적합한 배우로 지명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에서는 말이죠.”

“사상 가장 적합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맹순영은 깔깔 웃는다. 마침내 공포와 경악이 완전히 지워진 얼굴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던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출발한 시대 기준으로는 맹순영 씨도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맹순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진다.

#### 박서련 <거의 영원에 가까운 장국영의 전성시대> 부분

때로는 사소한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 간절한 일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때로 우리는 손에서 놓기 어려운 작은 희망만 가지고 엄청난 힘을 내기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으로 자기 내면의 힘을 북돋아,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맹순영이 앞으로 어떤 배우로 살아가게 될지는 맹순영 자신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듯 말이다. 하지만 맹순영은 미래에서 온 캐스팅디렉터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자기를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는 배우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발휘한 힘을 보면서 독자인 나 또한 다시 한번 힘을 낸다.

글 김잔디, 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전국구 공동 구축을 위한 행동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연극계 자치규약 <세이프 온 스테이지 S.O.S>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이후, 모두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인의 인식 변화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는 2016년 〇〇계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2020년 부산연극계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스탠더드 <Safe On Stage>(이하 S.O.S)를 기획, 제작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 ‘연극살롱-세이프 온 스테이지’를 개최하고,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성평등 포럼에서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기록 프로젝트 ‘WRWR: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기록한다’의 일환으로 출판물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S.O.S는 부산문화재단이 지역 연극계 관계자들과 미국 CTS(Chicago Theatre Standards)를 모델로 추진했으며, 극단별 워크숍 등을 거쳐 부산 연극계 상황에 맞는 규약으로 완성했다. 2020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으로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심혜림·송진희·조은하가 집필했다. S.O.S는 '안전, 존중,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강제 규약은 아니지만 보편적 인권을 지킬 권리, 작품 전 단계부터 오디션·계약·연습·리허설·분장실·공연·뒤풀이 등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실천 사항을 명시했다. 사전 예방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가이드, 체크리스트, 피해자를 위한 Q&A, 참고자료 및 연계 기관 정보도 담겨 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단체와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비영리적으로 수정·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덕분에 S.O.S를 참고한 극단 자체 내부 규약을 만드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S.O.S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 안전 교육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사전에 듣고 숙지합니다." "(계약서에) 나이·성별·장애·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관한 차별과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성적 농담 및 외모와 신체에 대한 품평을 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유의합니다." "나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S.O.S와 KTS(Korea Theatre Standards,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에 대한 각각의 워크숍에서 공통되는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연극계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보편적 인권으로, 서로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일지라도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전엔 나도 작품을 좀 더 우선시하는 편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람을 잃고 몸과 마음을 다치고 나서야 사람과 안전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다. 예술 활동 중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피해를 본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예술인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및 연대와 공동 행동이 필요하고,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연극계 미투 운동이 뜨겁게 일던 때 올라왔던 글 몇 개를 다시 찾아 읽었다. 지난 일이 될 수 없는, 여전히 살아 있는 말들이었다. AI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하는 시대에 절망을 느끼지만, 그나마 안전한 세계가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다행이다. KTS와 S.O.S가 만들어지기까지 힘써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워크숍이 열리고 책자가 발간됐을 때, 현장 예술인과 기관 담당자, 예술을 사랑하는 모두가 빠짐없이 보거나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나의 언어로 체화해 다시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논의의 장에 참여한 사람 대다수가 (지정 성별) 여성이라는 점은 문제이지만, 규약집을 함께 강독하고 토론하는 동료들을 만났으로써 서로 연결돼 있다는 안정감과 믿음,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CTS를 본보기 삼아 KTS와 S.O.S가 나왔듯, 많은 이가 이 '표준'을 현장에서 계속 적용하며 수정·보완해 더 나은 규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잘 스며들기를 바란다.

글 박하늘·배우. 2010년에 연극배우로 공식 데뷔했다. 가끔 1인 창작물을 발표하고, 음성 해설을 한다. 손목과 무릎 손상 이후 공연도 일상도 선택의 폭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 먹고사는 일과 창작 활동의 교집합을 찾고 있다. skypark7909@naver.com

사진 제공 송진희

Q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용을 즐겁게 작업하면서, 더 알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김현진입니다. 작업할 때 작품의 완성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느냐가 제겐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과정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 알알이 다 살아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웃음)

최근 발표한 공연 <몸 둘 바>도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친 작품이에요. 그때 진행한 워크숍 중 하나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인데, 이 훈련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짐과 신체를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업을 하며 작품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며, 누군가는 작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작업을 해나갈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Q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자취 생활을 해온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하죠. 10대부터 20대를 온전히 보낸 이 공간에서 떠날 때가 돼 돌이켜 보니, 정말 오랫동안 살았으나 이 공간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을 그냥 쉬는 곳, 잠깐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이 공간을 다시 생각했어요. 저와 고양이들이 함께 사는 이 공간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죠. 조금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제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떠날 때가 돼서 알게 된 거죠. (웃음)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롭게 만날 공간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기대돼요.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이곳에서는 막연히 많은 상상을 했어요. 책에서 발견한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면서 노트북 앞에서 저만의 작은 세계를 꾸려왔죠. 이곳 밖에서 실제로 작업할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계속 현실과 부딪치죠. 되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재밌어요. 생각하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고요. 아직도 <몸 둘 바> 공연 뒤풀이를 못 했어요. 4명이 넘어서요. (웃음) 조만간 상황이 괜찮아지면, 합평회처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려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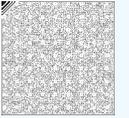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김현진은 무용을 전공해 퍼포머·안무가·예술교육가(TA)로 활동하고 있다. 살면서 가장 피부에 닿는 일을 마주하는 몸의 움직임을 탐색하는 작업을 지향하며, 조금 더 나은 (안전한) 작업 과정과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몸 둘 바>(차세대 열전 2020)를 구성·연출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진 안무가 자택 ©Kenn.김병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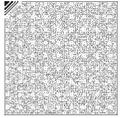
웹진 [춤:in]

# 02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b>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路加 길을 더하다-이응배展&gt;(~2. 22)</li> </ul>	<b>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파수꾼 &amp; 알&gt;(~2. 7)</li> <li>● 연극 &lt;존경하는&gt;(~2. 7)</li> <li>● 공연 &lt;송지원 바이올린 리사이틀&gt;</li> <li>● 전시 &lt;Exile Pattern, 망명 패턴&gt;(~2. 8)</li> </ul>	<b>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제4회 소설시장, #거울&gt;(~2. 7)</li> <li>● 연극 &lt;변신&gt;(~2. 7)</li> <li>● 연극 &lt;고시원&gt;(~2. 14)</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전통예술, &lt;마당을 나온 암탉&gt;(~2. 7)</li> <li>● 공연 &lt;심근수 피아노 독주회&gt;</li> </ul>
<b>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우주기사 김봉팔&gt;(~2. 10)</li> <li>● 연극 &lt;CAVE_2021 Seoul Version&gt;(~2. 10)</li> <li>● 공연 &lt;박정민 비올라 독주회&gt;</li> <li>● 연극 &lt;와이바이&gt;(~2. 9)</li> </ul>	<b>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무간도 &amp; 2인실&gt;(~2. 14)</li> <li>● 연극 &lt;인형의 집&gt;(~2. 14)</li> <li>● 공연 &lt;유문선 클라리넷 독주회&gt;</li> </ul>	<b>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크레디아 클래식클럽 2021-스윙메이커스 &amp; 대니구, 문재원&gt;</li> </ul>
<b>1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마지막 사건&gt;(~5. 9)</li> </ul>	<b>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위키드&gt;(~5. 1)</li> <li>● 연극 &lt;레테, 망각의 강&gt;(~2. 20)</li> <li>● 공연 &lt;테너 임웅균 독창회&gt;</li> <li>● 공연 &lt;바리톤 지광윤 독창회&gt;</li> <li>● &lt;토론극장: 우리_들&gt; '혼자 살고 싶지만 고독사는 하기 싫어'</li> </ul>	<b>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산울림 고전극장-돼지떼&gt;(~2. 28)</li> <li>● 공연 &lt;배우 서범석과 함께하는 갈라몬서트&gt;</li> <li>● 공연 &lt;더 피아니시모 음악예술학회 정기연주회&gt;</li> </ul>
<b>2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나찬미 비올라 독주회&gt;</li> </ul>	<b>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윤정은 피아노 독주회&gt;</li> </ul>	<b>2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오르간 오딧세이&gt;</li> </ul>



Thu	Fri	Sat	Sun
<b>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KBS교향악단 제762회 정기연주회&gt;</li> <li>● 공연 &lt;김동현 바이올린 리사이틀&gt;</li> </ul>	<b>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붉은 정원&gt;(~3. 28)</li> <li>● 연극 &lt;알앤제이(R &amp; J)&gt;(~5. 2)</li> <li>● 연극 &lt;제5회 늘푸른연극제_다시, 봄: 오이디푸스 왕&gt;(~2. 7)</li> <li>● &lt;토론극장: 우리_들&gt;</li> <li>● '우리에게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할까?'</li> <li>● 공연 &lt;2021 노원문화예술회관 신년음악회&gt;</li> </ul>	<b>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라이터(Writer)&gt;(~2. 7)</li> <li>● 뮤지컬 &lt;내 친구 유관순&gt;(~3. 28)</li> <li>● 공연 &lt;제5회 한국플루트학회 신인음악회&gt;</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무용 &lt;고요한 순환&gt;(~2. 7)</li> <li>● 공연 &lt;박유신 첼로 리사이틀&gt;</li> </ul>	<b>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노원빈 비올라 독주회&gt;</li> <li>● 공연 &lt;임정은 바이올린 독주회&gt;</li> </ul>
<b>1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20 &amp; 잔디 로다리 탄생 100주년 특별전&gt;(~5. 16)</li> <li>● 국립무용단 무용 &lt;새날&gt;(~2. 13)</li> </ul>	<b>12</b>	<b>1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피아니스트 신지은의 IN THE MUSIC SERIES I&gt;</li> </ul>	<b>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제38회 젊은이의 음악제&gt;(~2. 19)</li> </ul>
<b>1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창작 뮤지컬 &lt;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gt;(~3. 21)</li> <li>● 뮤지컬 &lt;하모니&gt;(~3. 1)</li> <li>● 공연 &lt;2021 서울시향 임동혁의 스크리빈 피아노 협주곡&gt;(~2. 19)</li> <li>● 공연 &lt;김현정 피아노 독주회&gt;</li> </ul>	<b>1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길들여진 새&gt;(~2. 28)</li> <li>● 연극 &lt;맥베드&gt;(~2. 27)</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연극 &lt;고역&gt;(~2. 28)</li> <li>● 뮤지컬 &lt;천사 &amp; 악마&gt;(~2. 28)</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무용 &lt;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gt;(~2. 21)</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무용 &lt;두 개의 혀&gt;(~2. 21)</li> <li>● 공연 &lt;윤수연 오보에 독주회&gt;</li> </ul>	<b>2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올 댓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I, II, III&gt;</li> <li>● 공연 &lt;양민제 피아노 독주회&gt;</li> <li>● 공연 &lt;김성아 바이올린 독주회&gt;</li> </ul>	<b>2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김한돌 피아노 독주회&gt;</li> </ul>
<b>2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검은 사제들&gt;(~5. 30)</li> </ul>	<b>2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아빠의 4중주&gt;(~2. 27)</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전통예술 &lt;울림 광궤&gt;(~2. 28)</li> <li>● 공연 &lt;사랑은 팝콘&gt;</li> <li>● &lt;토론극장: 우리_들&gt; 'C블랙 슈퍼전파사건'</li> <li>● 전시 &lt;앤디워홀: 비기닝 서울전&gt;(~6. 27)</li> </ul>	<b>2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더 픽션&gt;(~5. 30)</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무용 &lt;돌&gt;(~2. 28)</li> <li>● 공연 &lt;어니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gt;</li> <li>● 공연 &lt;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김준환 첼로 독주회&gt;</li> <li>●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 &lt;창작실험 과정과 공유&gt;(~3. 1)</li> </ul>	<b>2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이호찬 첼로 독주회&gt;</li> </ul>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

**〈세대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

전시 〈세대공감-최달용의 서울살이〉는 1945년생인 ‘해방둥이’ 서울 사람 최달용 씨의 학교·직장·결혼 생활 등을 통해 1950~70년대 서울살이를 공감해 보고자 한다. 서울과 함께한 인생을 기록하고자 평생 수집한 최달용 씨의 개인 자료로 구성된 전시다. 시대별 서울의 풍경과 ‘아버지 세대’의 청년 시절 삶을 공감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3월 28일(일)  
**장소**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사전 예약  
**문의** 02-3399-2900



**청계천박물관 기획전 〈미디어아트 x 세운상가〉**

〈미디어아트 x 세운상가〉는 세운·청계천변 상가의 장인(匠人)들이 예술을 만나 이룩한 뜻밖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전시다. 기술과 예술의 접점인 미디어아트는 자연스럽게 기술적 진보와 궤를 같이 해 왔다. 〈미디어아트 x 세운상가〉는 세운상가에서 이루어진 예술과 기술의 만남에 주목한다.

**일시** ~5월 9일(일)  
**장소**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사전 예약  
**문의** 02-2286-3410



**전시 〈Exile Pattern, 망명 패턴〉**

에티오피아 출신 인권활동가이자 창작자, 그리고 망명신청자인 Bereket Alemayehu의 사진전. 열대 국가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추위와 쓸쓸함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포착한 겨울의 아름다움, 얼음의 질감과 빛을 사진으로 전한다.

**일시** 2월 2일(화)~8일(월) 오후 12시~7시  
**장소** 어반플루토 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2633-1343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전통예술,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창작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지기학 연출의 창본·작창의 새판소리로 재탄생한다. 양계장 암탉 앞쪽이 세상 밖으로 나와 겪는 에피소드와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판소리 정서를 기반으로 한 동시대 언어로 그려낸다.

**일시** 2월 3일(수)~7일(일)  
 수~금 오후 8시 | 토 오후 4시 | 일 오후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4440-2128



**뮤지컬 〈붉은 정원〉**

투르게네프의 소설 《첫사랑》을 각색한 창작 뮤지컬 〈붉은 정원〉이 2018년 초연 이후 3년 만에 개막한다. 원작의 서정적인 문체와 감수성을 살려 시적인 대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무대에 구현해 호평과 흥행을 얻은 작품. 이번 공연은 성재준 연출, 정은비 작가, 김드리 작곡가가 의기투합했다.

**일시** 2월 5일(금)~3월 28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유니플렉스 2관  
**관람료** 로즈석 6만 6천 원, 가든석 5만 5천 원, 발코니석 4만 4천 원  
**문의** 02-3454-1401~2



**연극 〈알앤제이(R & J)〉**

엄격한 가톨릭 학교를 배경으로, 금서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탐독하며 위험한 일탈 게임에 빠지는 학생 네 명의 이야기. 2018년 7월 한국 초연 이후 2019년 6월 재연 공연까지 4만 7천여 명의 누적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공연에는 초연·재연에 함께한 배우들 외에도 새 얼굴이 합류해 기대감을 높인다.

**일시** 2월 5일(금)~5월 2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2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장소** 이해랑예술극장  
**관람료** R석·무대석 6만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02-3485-8700



### <토론극장: 우리\_들>

<토론극장: 우리\_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공동체와 그 관계에 대해, 다양한 사회·심리적 실험을 관객과 함께 체험·토론하고자 기획된 세미나다. 2월에 진행되는 <토론극장>은 친구를 포함한 타인과 집단의 관계를 만드는 조건 및 심리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 관한 이해와 돌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총 3회에 걸쳐 마련한다.

일시 2월 5일(금) 오후 3시 | 16일(화) 오후 4시 | 26일(금) 오후 3시  
장소 광화문 워커히트 아크홀  
문의 forumimember@gmail.com



### 연극 <CAVE\_2021 Seoul Version>

<차세대 열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성과 발표전이다. <차세대 열전 2020>의 연극 분야 선정작인 <CAVE>는 증권가 지라시와 메신저 서비스 등에서 마주칠 수 있는 '페이크뉴스'의 생산과 확대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현상을 다루는 작품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진다.

일시 2월 8일(월)~1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TINC(This Is Not a Church)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10-3224-6294



###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1

#### <스윙메이커스 & 대니 구, 문재원 콘서트>

클래식과 만난 재즈에 관한 '클래식, 재즈에 홀릭하다!' 공연. 경쾌한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 스윙메이커스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피아니스트 문재원이 클래식 음악을 재즈풍으로 연주한다. 드뷔시의 <골리워크 케이크 워크>,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비롯해 다양한 곡이 준비돼 있다.

일시 2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전석 3만 8천 원  
문의 클럽발코니 1577-5266



### 전시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20 & 잔니 로다리 탄생 100주년 특별전>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은 '볼로냐 아동 도서전'의 메인 행사로 2020년에 57회를 맞이했다. 일러스트를 통해 예술 세계의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장. 이번 전시와 더불어 이탈리아 작가인 잔니 로다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원화와 절판된 도서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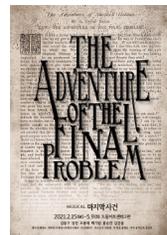
일시 2월 11일(목)~5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월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일반(만 19세 이상) 1만 5천 원, 청소년(만 13~18세) 1만 3천 원, 어린이(36개월~만 12세) 1만 1천 원  
문의 02-837-6611



### 국립무용단 <새날>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명절 기획 공연 <새날>. 새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풍성한 한국춤 잔치로, 다채로운 우리 춤에 극적인 무대연출, 생생한 라이브 연주 등이 더해지는 공연이다. 2018년에 시작해 매년 사랑받고 있다.

일시 2월 11일(목)~13일(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2280-4114



### 뮤지컬 <마지막 사건>

뮤지컬 <마지막 사건>은 소설 <셜록 홈스>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가 아서 코난 도일과 그의 소설 속 캐릭터 셜록 홈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셜록 홈스의 창조자 아서 코난 도일이 지낸 작가로서의 고뇌와 숨겨진 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창작했다. 셜록 홈스의 죽음을 다룬 동명 소설이 모티프다.

일시 2월 15일(월)~5월 9일(일)  
단, 2월 15일(월)·17일(수) 오후 8시(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2관  
관람료 전석 6만 원  
문의 02-6954-0772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창작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역사상 가장 희망이 없던 일제강점기, 모든 희망을 상실한 인물 해웅과 성불이라는 희망뿐인 지박령 옥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해웅과 옥희, 그리고 각자의 소망을 가진 원귀들이 폐가 쿠로이 저택에서 벌이는 소동을 그렸다.

일시 2월 18일(목)~3월 21일(일)  
 장소 컬처스페이스 연유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70-7724-1535



**2021 서울시향 임동혁의 스크라빈 피아노 협주곡**

서울시향 부지휘자 율슨 응이 현대적인 분위기로 무대를 이끈다. 이번 무대에서는 블라허, 힌데미트, 스크라빈까지 현대적인 색채로 가득찬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지휘자 율슨 응과 서울시립 교향악단,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호흡이 기대되는 공연이다.

일시 2월 18일(목)~19일(금) 오후 8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C석 1만 원  
 문의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무용**

**〈그런데 사과를 왜 까먹었습니까?〉**

YJK 댄스 프로젝트의 〈그런데 사과를 왜 까먹었습니까?〉는 인류사에서 ‘애플’이 상징하는 사건과 그에 맞물린 인간의 삶, 세계의 변화를 다각도로 되짚어 보는 작품이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뉴턴의 사과, 현대사회의 사과(스마트폰, 인터넷 등)를 소재로 인간의 지적 호기심부터 이 시대 인간의 위치와 정체성을 묻는 질문까지 담아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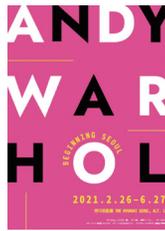
일시 2월 19일(금)~21일(일)  
 금 오후 8시 | 토·일 오후 4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70-7913-9071



**뮤지컬 〈검은 사제들〉**

영화 〈검은 사제들〉이 창작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국내 뮤지컬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오컬트 장르’ 작품으로, 영화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뮤지컬 무대만의 특색을 살린 연출과 연극적 아이디어로 라이브의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남 극작가와 김효은 작곡가, 오루피나 연출, 신은경 음악감독, 채현원 안무가가 의기투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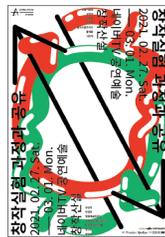
일시 2월 25일(목)~5월 30일(일)  
 평일 오후 8시 | 토·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3월 2일(화) 공연 없음)  
 장소 유니플렉스 1관(대극장)  
 관람료 R석 8만 8천 원, S석 6만 6천 원, A석 4만 4천 원  
 문의 클럽서비스 1577-3363



**전시 〈앤디 워홀: 비기닝 서울〉**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의 대규모 회고전이 여의도에 개장하는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메릴린 먼로, 리즈 테일러 등 할리우드 스타 초상과 꽃, 캠벨 수프 등 앤디 워홀을 대표하는 판화 작품을 비롯해 총 153점을 선보인다.

일시 2월 26일(금)~6월 27일(일)  
 장소 THE HYUNDAI SEOUL, ALT. 1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3천 원, 어린이 1만 1천 원  
 문의 02-537-0311



**〈창작실험 과정과 공유〉**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분야의 14개 예술 단체의 창작 과정을 공유한다. 창작 중인 작품의 일부를 쇼케이스·피칭 등의 방식으로 시연하고, 실험 과정에 대한 기록과 결과를 발표한다.

일시 2월 27일(토)~3월 1일(월)  
 장소 네이버 TV 공연예술창작산실  
 관람료 무료  
 문의 070-7092-8171



2021  
2.11  
|  
2.13  
목·금·토 15:00  
국립극장 하늘

NEW DAY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존  
2020-2021

예술감독·안무  
손인영

협력안무  
박재순 김미애  
정관영 정길만  
황용천 송 설  
송지영

협력연출·음악감독  
정종임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관람료  
전석 30,000원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치는 의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교예술실험센터 --- 지난 11월호부터 7월호까지 재밌었어요.  
비밀에 공간 만들어놓아 자유롭게 재밌게 읽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한 곳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정미조님, 김보람님 기사를 재미있게 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정미조님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범 내려온다' 영상 재보는 요즘.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① 이번 호에서 도파민처럼 작가를 볼 수 있게 좋았는데 다음 호에서 (그 후에라도)  
김보람 나 도복스 작가를 꼭 소개해주세요.  
② 음지로나 별래 등에 정시공감등만 따로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정시공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어 종이 잡지는 주로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독자 엽서

김진아님(경기도 부천시)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교예술실험센터'  
2020년 11월호부터 2021년 1월호까지 챙겨 봤어요.  
비밀에 공간 만들어놓아 자유롭게 챙겨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곳 ♥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정미조님, 김보람님 기사를 재미있게 봤어요.  
어릴 때는 정미조님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그리고 '범 내려온다' 영상 챙겨 보는 요즘.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① 이번 호에서 도파민처럼 작가를 볼 수 있어 좋았는데 다음 호에서(그 후에라도) 김보람이나 도복스 작가를 보고 싶습니다.
- ② 음지로나 문래동에 전시 공간들만 따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정리^^

## 편집 후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2월엔 2번째 새해 인사를 할 수 있지요. 새해 복, 2배로 받으세요.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2월 5일, 뒤돌아보지말아요.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이봄을 앞둔 2월의 어느 밤 같은 1월의 밤에 2월호를 마감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보고 싶은 웹툰·웹소설이 많아살아갈 힘을 1 얻었습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2월은 모두 2배로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창작실험 과정과 공유

2021. 02. 27. Sat.

— 03. 01. Mon.

네이버TV 공연예술

창작실험

공놀이클럽  
공영선  
김동국  
김지훈  
몸소리말조아라  
불세출  
서현석

# 창작실험 과정과 공유

2021. 02. 27. Sat.

— 03. 01. Mon.

네이버TV 공연예술

창작실험

송남현  
안경모  
열혈예술청년단  
유재준(아파트2021)  
이진원(태식그룹)  
장수미  
장이주